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 018

HANSAE

WINTER

IN



LPGA 공식인증 파트너



 **LPGA®**
GOLF WEAR

유연석이 선택한 LPGA골프웨어



LPGA골프웨어가 고진영, 장하나, 제니퍼 송, 양수진, 김도연, 사라 제인 스미스, 박소현2 프로를 후원합니다.

LPGA 골프웨어 STORE

롯데 보령/도곡점/문정점/마리오 구로점/LFS웨어 연수점/아이조빌 부평점/롯데 중동점/신세계 의정부점/AK 평택점/죽전점/김포창기점/일신대이점/덕소상매점/안산한대점/수원영통점/안양평촌지점/모다 공지암점/시화점/포천송우리점/신세계스타일마켓 대전점/세이 대전점/모다 대전점/신세계 중점점/정주출랑점/천안쌍용점/AK 원주점/군산점/동해점/세정 광주점/광주상무점/대구성서점/세븐밸리 칠곡점/구미통곡점/포항점/모다 울산점/롯데 동래점/해운대점/연대 부산점/부산녹산점/진주청춘점/창원점/김해진명점

WWW.LPGAGOLFWEAR.COM |   @LPGAGOLFWEAR | 대리점 개설 문의 02.2142.7743



Levi's®

BUCKAROO



Air
**LONG
MASTER**

버커루 에어 롱 마스터 롱 다운 점퍼

#선미다운점퍼
#양세종다운점퍼
#버커루에어롱마스터



WWW.BUCKAROO.CO.KR | [f buckaroojean](#) [@buckaroo_official](#)

Gaspard
& Lisa

| crema Grande

가스파드 앤 리사 크레마 그랑데 스페셜 에디션

오직 예스24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독서



6.8"

6.8인치 e-ink
디스플레이

219g

책 한 권 보다
가벼운 219g

Front
Light

밤에도 환하게
프론트 라이트

Android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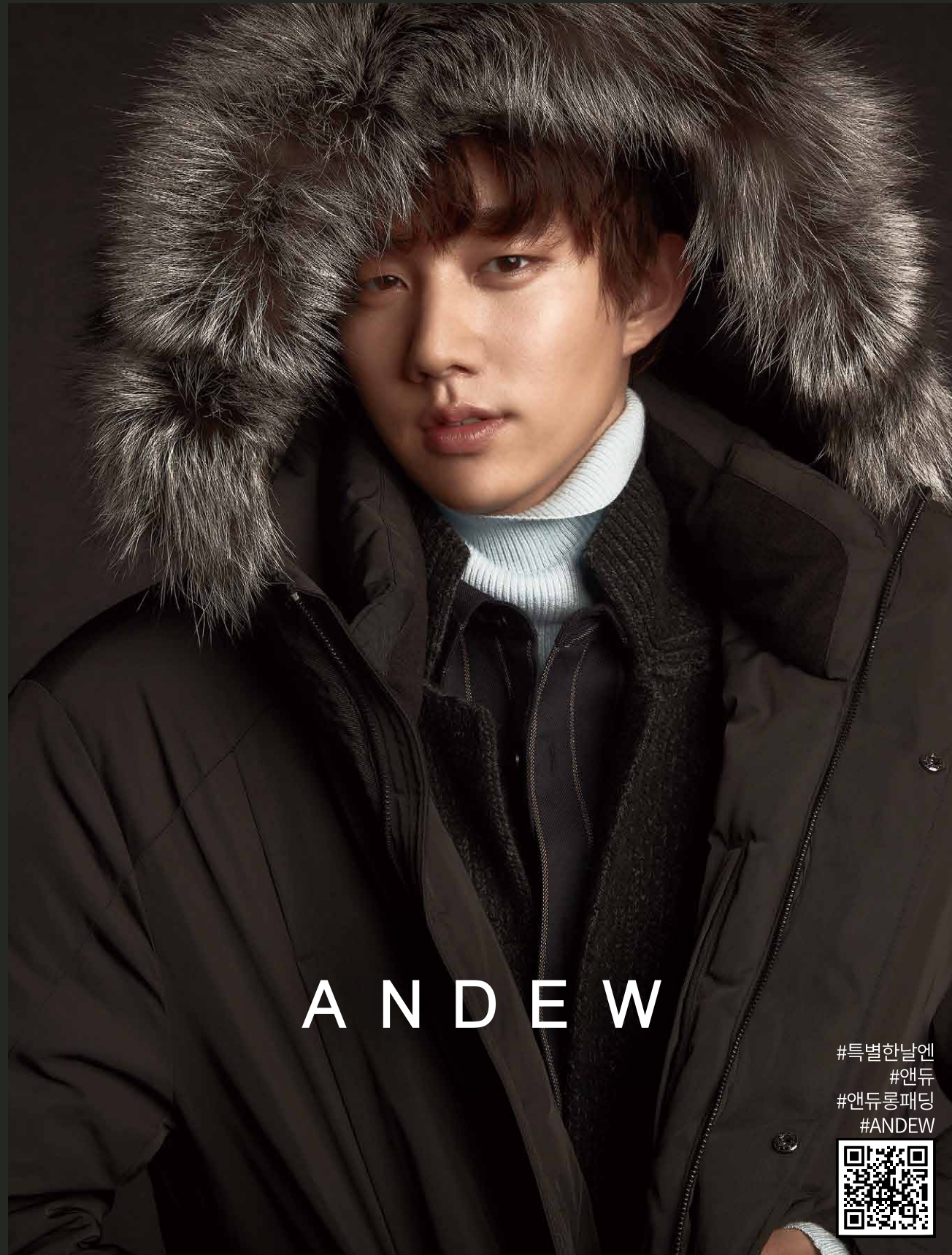
안드로이드 4.4 이상
열린 서재

BT
2.4GHz

2.4GHz의
무선 거리 지원

Copyright © 2018 Sony Creative Products Inc. All rights reserved. GASPARD ET LISA™ Hachette Livre.

STYLISH•URBAN•CASUAL



A N D E W

#특별한날엔
#앤듀
#앤듀롱패딩
#ANDEW



WWW.ANDEW.CO.KR |   @andew.official



FRJ Jeans



CONTENTS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18 WINTER

COVER STORY



겨울, 세상이 잠시 얼어붙은 시간. 고요하고 시린 풍경만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하지만 그 숨죽임 속에서도 우리는 나지막이 뛰는 맥을 느낀다. 잠시 움츠린 생명력을 감각할 수 있다. 차갑게 언 그 땅 속 어딘가 곧 움틀 싹이 자리해 있기 때문에, 겨울이 품은 온기는 그 어떤 계절의 것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발행일: 2019년 1월 30일
창간일: 2014년 7월
등록번호: 영등포, 바00169
발행인: 김동녕
편집기획: 배연호
인쇄: 동아출판
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한세에스24홀딩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층
T. 02)3779-0800



WINTER THEME
WE ARE CIRCLE

가해년 특집 인터뷰 '돼지띠 모임'
황금돼지의 인연으로 나와 나, 우리가 되다 12

2019 패션 트렌드
한세를 통해 보는 올해의 패션 트렌드 16

2018년 문화결산
사심을 가득 담아 뽑은 올해의 〇〇 20

별별 업무 탐방
하루 종일 만화책을 읽습니다만? 22

Special Event
한세실업 7부문 2018 송년행사 26

따뜻한 겨울, 한세인의 나눔
FRJ, '땡큐 119' 캠페인으로 소방관들에게 고마움 전하다 30

따뜻한 겨울, 한세인의 나눔
공공 연 추위를 녹인 한세드림의 연탄 기부 32

국제문화교류전
한세에스24문화재단, <미소의 땅 미안마, 관계의 미학을 키우다> 서울 개최 34

참여형 사회공헌
신나는 동아 하이탑 과학캠프 3기 36

내가 패션왕
'은근한 멋' 추구하는 그들의 감각을 읽다 38

나도 한마디
크리스마스에 대한 우리들의 단상 42



패션쇼
인생샷을 위한 스타일, 한세 패션에서 찾다 44

애완동물 콘테스트
사랑스러움 가득~ 한세인의 반려동물 48

참! 잘했어요
추운 날씨도 잊게 만드는 훈훈함,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50

레포트 투어
바다의 고요에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 52

업무도 식후경
맛집 소개, 우리 동네 이런 곳이?! 54

책읽아웃
책읽아웃, 1주년 특집 부산 공개방송 김하나, 오은 작가와 함께 56

문화다방
한겨울 허한 속 채워줄 문화 간식들 58

당신의 심리
우선의 기자의 '독서 취향'으로 알아보는 성격 테스트 60

오피스 톡톡
소확행 말고 소확행 해야... 61

우리말 바로 쓰기
'날 새다'와 '밤 새다' 차이를 생각하다 62

간식시간
수제 함박스테이크 63

한세일보
한세 겨울호 계열사 소식 64

We are circle



재능은 게임에서 이기게 한다.
그러나 팀워크는 우승을 가져온다.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 미국 농구선수)

Talent wins games,
but teamwork wins championships.

“원을 만들어 하나가 되다”

동그라미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자전거 바퀴부터 비행기 바퀴까지, 크기와 무게는 다르지만
찌그러진 곳 없이 완벽한 원형을 이루고 있음은 같습니다.손에 손을 맞잡아 하나의 원을 만들면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글로벌 한세의 저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황금돼지의 인연으로
너와 나, 우리가 되다**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다. 부와 복이 굴러들어올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드는 올해의 시작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자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세의 돼지띠는 모두 모두 모여라! 돼지띠 한세기족이 하나가 된 시간은 유난히 따뜻했다.



돼지띠의 해를 맞은 소감이 어떤가요?

김승수: 2019년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인공은 항상 해피엔딩을 맞듯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김경아:** 새해를 맞을 때마다 행복한 일이 가득할 소망하지만 올해는 특히 돼지띠의 해만큼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이 큼니다. **임재경:** 저는 제가 아니라, 곧 세상에 나올 아이가 돼지띠예요. 누구보다 특별한 한 해가 되겠죠?

황금돼지의 좋은 기운이 느껴지나요?

정민진: 60년 만에 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들어어요. 듣기만 해도 올해는 재물복이 넘칠 것 같은 기분 좋은 기대감이 듭니다. **김승수:** 황금돼지해의 기운으로 이런 특별한 인터뷰 자리도 갖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함박눈이 내리고 있는데, 저에게도 함박눈 같은 복이 내렸으면 좋겠네요. **조세라:** 저희 돼지띠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좋은 기운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띠라는 공통점에 친밀감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조세라: 이렇게 돼지띠만 모임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같은 띠를 가졌다고 해서 그런지 신기하게 왠지 모를 친밀감이 드네요. **박소연:** 맞아요. 같은 띠라서 뭔가 저와 통

1. 한세실업 2A22팀 박소연 인턴

2. 에스24 마케팅팀 김승수 사원

3. 동아출판 창의2실 수학팀/수학1파트 권혜진 대리

3 4. 한세드림 총무팀 조세라 주임



1. 한세엔케이 LPG 디자인팀
정민진 대리

2. 한세에스24홀딩스 경영분석3팀
임재경 주임

3. FRJ MD 김경아 대리

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가까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편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네요.

‘돼지띠는 유독 이렇다’ 하는 특징이 있나요?

권혜진: 돼지띠는 낙천적이고 활발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요. **임재경:** 맞아요. 돼지띠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착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태어날 우리 아이도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는 복이나 운의 상징이잖아요. 돼지띠라서 겪은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일화가 있나요?

박소연: 돼지띠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운이 좋았어요. 남들은 잘 안 되는 추천이나 이벤트에 당첨되는 경우가 많았죠. 한세실업에 입사하게 된 것 또한 운이 좋아서가 아닐까요? **권혜진:** 저는 몇 달 전 단골 고깃집에 갔을 때, 사장님께 농담으로 저 돼지띠인데 껍데기 서비스로 주시면 안되냐고 하니까 정말 주시더라고요. 돼지띠 덕을 본 거죠.

회사의 장점을 한번 꼽아볼까요?

권혜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박소연:** 일을

너

나



일 년 뒤에는 지금보다 넓은 사람이 되어 있었으면 해요. 내년 이맘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며 뿌듯함을 느끼는 게 목표예요. **조세라:** 지금 감기에 걸려 있는데, 2019년에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운이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인연이 있다는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단 지나친 지출은 조심해야 한다.” 올해 돼지띠의 운세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조세라: 적금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정민진:** 충동구매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 가게 부를 써야겠어요. **김경아:** 결말이 긍정적인 해만큼 매사에 인내하는 느긋함을 가져야겠어요.

동료이자 같은 띠인 서로에게 애정을 담아 먹담 한마디씩 해주세요.

조세라: 이 기회에 돼지띠를 가진 여러 계열사 식구들을 만날 수 있어 기분 좋았습니다. 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김승수:** 이루고자 하는 꿈들 꼭 이루길, 또 건강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박소연:** 미소 잃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권혜진:** 2019년의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하세요!

우리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회사보다 빨리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다는 게 만족스러워요. **정민진:** 20~30대가 많은 편이라 상하관계가 딱딱하지 않고 세대 간 소통을 많이 해요. **김경아:** 야근이나 회식을 강요하지 않아서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합니다. 가정에 충실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올해 잡은 목표가 있다면요?

김승수: 작년보다 성장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박소연:** 저도 비슷해요. 많은 일을 경험하고 해결하면서

한세를 통해 보는 올해의 패션 트렌드

한세의 브랜드 콘셉트만 봐도 2019 패션 트렌드가 보인다. SS시즌 브랜드별 스타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모두 '패피'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자. 멋도 편안함도 놓치지 않은 콘셉트 안에 우리가 추구할 패션이 있다.



FR J Jeans RETRO & STREET MOOD

발목 기장의 '크롭테이퍼드'와 루즈핏 스트레이트인 '로그핏'이 강세다. 기존 여성의 슬림 테이퍼드핏에서 밀위가 높아진 레트로 스트릿 무드의 '겔프렌드핏'이 추가됐다. 워싱은 오픈구제와 스톤워싱 빅트윌 소재를 사용해 트렌디한 워싱을 제안한다.

HANSAE DREAMS New retro, unique graphic

따뜻한 햇살을 담은 mellow yellow와 청량함이 느껴지는 indigo blue의 매칭으로 봄을 알리고, 채도 높은 red가 포인트로 사용돼 경쾌함을 살렸다. 직접 그린 듯한 순수하고 심플한 드로잉은 니트와 우븐에 접목해 스타일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윗트 있는 스타일링을 연출한다.

더 높은 곳에서 날 수 있는 자신감

19 SS PLAYKIZ는 키즈의 패션의 중심이 되어 패션을 주도하고 리드하고자 'ALWAYS LEADING, ALWAYS FIRST'를 모티브로 삼았다. SPORT / RUN / PLAY / LIVE의 콘셉트에서도 느껴지는 자유분방하고 생동감 넘치는 컬러, 스포티함과 라이프스타일의 믹스매칭 룩의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인 만큼 편안하게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컨버스로 코트 위 플레이가 시작된다.

ALL STAR PLAYER

컨버스는 농구화에서 시작된 척테일러를 강조하며 농구



와의 연관성을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빈티지 스포츠웨어 감성에 스트리트 웨어의 요소인 볼드한 칼라블록, 빅 로고 그래픽을 적용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키 아이템으로는 농구선수들이 입는 트랙수트에서 영감을 얻은 스포티한 트랙집업과 팬츠 세트, 윈드자켓, 테이핑 디테일을 살린 여아 원피스가 있다.

더 가볍고, 더 부드러운 리바이스 키즈
19 SS 리바이스 키즈는 여전히 자유분방하고 멋진 Cool kids들을 위한 디자인과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의 데님으로 Cool한 착용감은 물론 실용성까지 업그레이드된 데님을 선보인다. 보다 Light한 컬러감의 데님에 레드와 네이비의 컬러 조화로 시크한 Street fashion을 완성하는 반면, 핑크, 옐로우, 그린 등과 같은 컬러를 사용해 생기 있고 화사한 시즌 분위기를 주도한다.

ART - SCHOOL, 나만의 공간을 원하는 아이들의 로망
나만의 아지트, 학교, 놀이터, 하늘을 볼 수 있는 해먹에서 따뜻한 봄 햇살을 느끼며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물감, 붓, 레고, 프라모델 등을 모티프로 삼았으며, 알록달록한 핸드 페인팅과 DIY 등 나만의 생각으로 꾸미고 만드는 일에 열중하며 미래의 아티스트를 꿈꾸는 콘셉트다.



Trend Color Blocking



Color Blocking #Color_Blocking #Contrast #Sporty #2019_Trend_Fashion
2018년에는 비교적 넓은 면적과 세련된 색상의 혼합으로 럭셔리한 컬러블로킹이 유행했다면, 2019년에는 더욱 대비되는 색 조합과 스포티한 느낌이 유행할 전망이다. 크루넛, 목넥, 브이넥, 드레스 스타일의 니트웨어에 선명한 블로킹과 스트라이프를 사용해 대중적이면서도 젊음이 넘치는 감각의 아이템이 집중 조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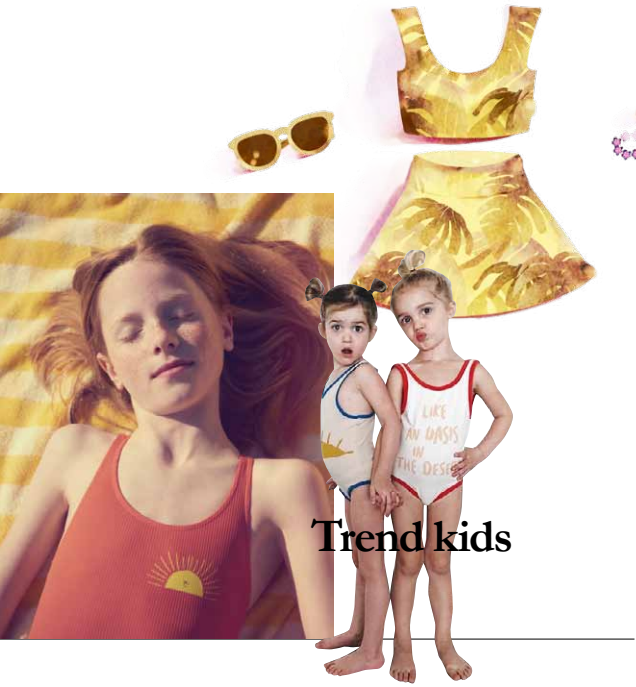
Trend Tie & Wrap Top



Tie & Wrap Top #Tie&Wrap_Top #2019_Trend_Fashion
2018년 타이/랩탑은 비교적 기장이 짧고 매듭이 밑단에 위치했다면 2019년은 기장이 길어지고 매듭의 위치가 올라간 디자인이다. 다양한 오버레이 효과로 다채로운 실루엣을 만들고, 가슴을 감싸거나 잘록한 허리를 만들어 여성미를 강조한다.



Coral #Living_Coral #Coral_Pink #Pantone #2019_Trend_Color
풍부하고 부드럽지만 디지털상에서의 선명함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연 그대로의 친숙함과 활기참, 안도감을 발산한다.



Coloful & Free Spirit #1990s_Free_Spirited #Netro #Colorful #2019_Trend_Fashion
다양한 컬러와 프린트로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전달한다. 빈티지 옐로우와 오렌지의 활용으로 '뉴트로'의 감성도 살린다.



Check #Glen_Check #Plaid_Check #2019_Trend_Fabric
비비드한 컬러와 다양한 체크 크기의 활용으로 클래식 플레이드 체크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브러시드 체크, 텍스처가 가미된 글렌 체크들이 포근한 어반 느낌을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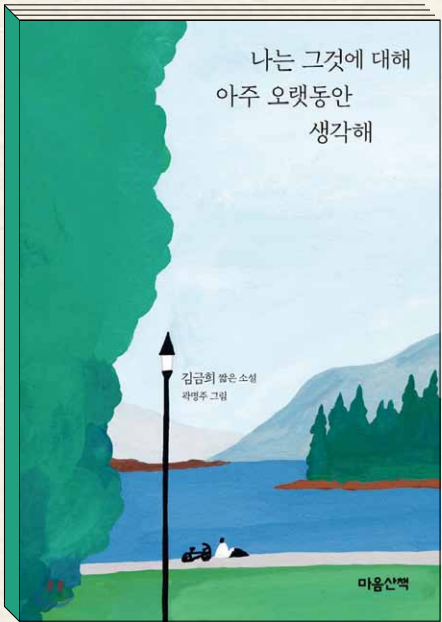
floral print #S/S19_PRAIRIE_GIRL_MEADOW_FLORAL
Meadow floral(초원의 꽃)을 중심으로 한 여성스러운 테마는 사랑스러운 탑과 드레스, 팬츠 등에 다양하게 표현, 모던한 'prairie girl'들을 탄생시킨다.

사심을 가득 담아 뽑은
올해의

올해의 음반
예스24 클래식MD
최하나 과장



Max Richter 막스 리히터 : 블루 노트북 (The Blue Notebooks)
영화 <컨택트>와 <셔터 아일랜드>에 삽입되었던 곡 'On the nature of daylight'가 수록된 앨범. 아련하게 반 복되는 선율은 깊은 밀도로 귀를 사로잡았고 그 너머에 는 막스 리히터가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한 정치적, 사 회적 폭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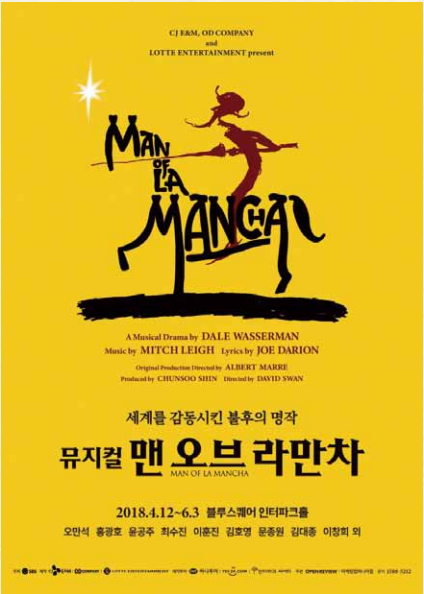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도서 MD라고 하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느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시간 을 따로 내지 않으면 읽고픈 책을 읽지 못한다. 그래서 주로 출퇴근 시간에 '읽어야 할 책'이 아닌, '읽고 싶은 책'을 읽는다. 대방동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이 시간 이 짧다 보니 주로 시집이나 단편소설을 골라 집을 나선 다. 올해 출퇴근 시간에 가장 좋았던 책은 김금희의 짧 은 소설집이다. 마음을 두드리는 다정하고 사려 깊은 목소리로 가득하고, 어디서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 다고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혼잡한 버스 안에서도, 한 편을 읽고 나면 다음 소설로 넘기지 못하고 두 눈을 감 게 될 정도로, 긴 여운을 남기는 소설들로 가득하다.

올해의 책
예스24 문학MD
김도훈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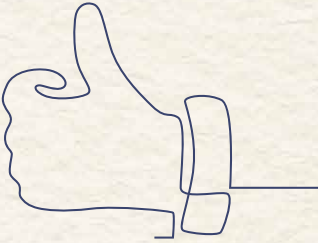
보헤미안 랩소디
갓은 패러디에 공중파 특별 방송 편성까지! 올해 개봉 한 영화 중 가장 큰 파급력을 자랑한 영화라고 생각한 다. 커다란 화면과 뽐뽐한 사운드 속에서 우리는 마치 퀸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 그들의 음악과 감정 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영화를 보기 전, 1994년 태어난 나에게 '퀸'은 그저 유명했었던 영국 밴드,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는 동안 나는 퀸에게 제대로 입덕하고야 말았다. 가슴을 울리는 퀸의 노래 와 실제 멤버들과 배우들의 엄청난 싱크로율까지!!! 모 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뤄 엄청난 시너지를 발산하는 영 화 앞에서 그 누구도 퀸의 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기 존의 팬들에겐 진한 향수를, 일반인들에겐 제대로 된 입덕 계기를 선물한 영화! 심지어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라이브 에이드 공연 장면에서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나의 운명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아직 보지 않았 다 면 지금 당장 보러 가세요! 어서!

올해의 영화
예스24 영화사업팀
장희정 사원



맨 오브 라만차
다른 공연이 많았지만, 담당자의 사심을 가득 담았기 에 올해의 공연은 단연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다. 극 중 세르반테스가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로 변장하며 부르는 넘버 끝에 창을 치켜드는 장면에서 매번 눈치도 없이 눈물이 난다. 이를 수 없는 꿈과 이길 수 없는 싸 움임을 알면서도 길을 나서는 돈키호테의 마지막을 알 고 보는 장면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아직 공연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겐 스포가 될 테니 극 중 대사를 마 지막으로 내용에 대한 말은 아끼기로 한다.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은 현실에 안주하고 꿈을 포기 하는 것이지요!"

올해의 공연
예스24 공연사업팀
한지인 대리



하루 종일 만화책을 읽습니다만?

YNK미디어
해외 단행본 기획팀
성지은 사원

1. 어디에 소속된 누구인가요?

YNK미디어 해외 단행본 기획팀 소속의 사원, 성지은입니다.

2. YNK는 어떤 회사죠?

YNK미디어는 국내, 해외 소설 및 만화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예스24의 웹소설, 라이트노벨, 코믹 플랫폼인 시프트북스와 흥대 서교동에 있는 팝컬처 복합 매장인 흥대던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인은 어떤 직무를 맡고 있나요?

YNK미디어에서 발행하고 있는 코믹스 레이블인 시프트코믹스의 기획 및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일본에서 발매된 다양한 출판사와 장르의 만화를 읽고, 국내에 발매될 작품을 발굴하는 업무와 일정에 맞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외 만화의 번역, 제작 및 편집,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4. 종일 만화책을 읽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기획 과정에서는 일본에서 발매된 만화를 읽고 편집 과정에서는 국내 서비스를 위해 번역이 완료된 만화를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시간 대부분을 만화를 보는 일에 사용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발매된 일부 잡지는 현지 출판사에서 우편으로 실물을 직접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저 자신도 '지나가실 때 다른 분들이 보시면 노는 줄 아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업무 시간 외에도 정말 내일까지 못 참겠다 싶으면 야에 집으로 갖고 가서 보기도 해요. 거기다 개인적인 취미 생활로 보는 웹툰과 타사 발매 만화까지 더하면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의 일상을 만화와 함께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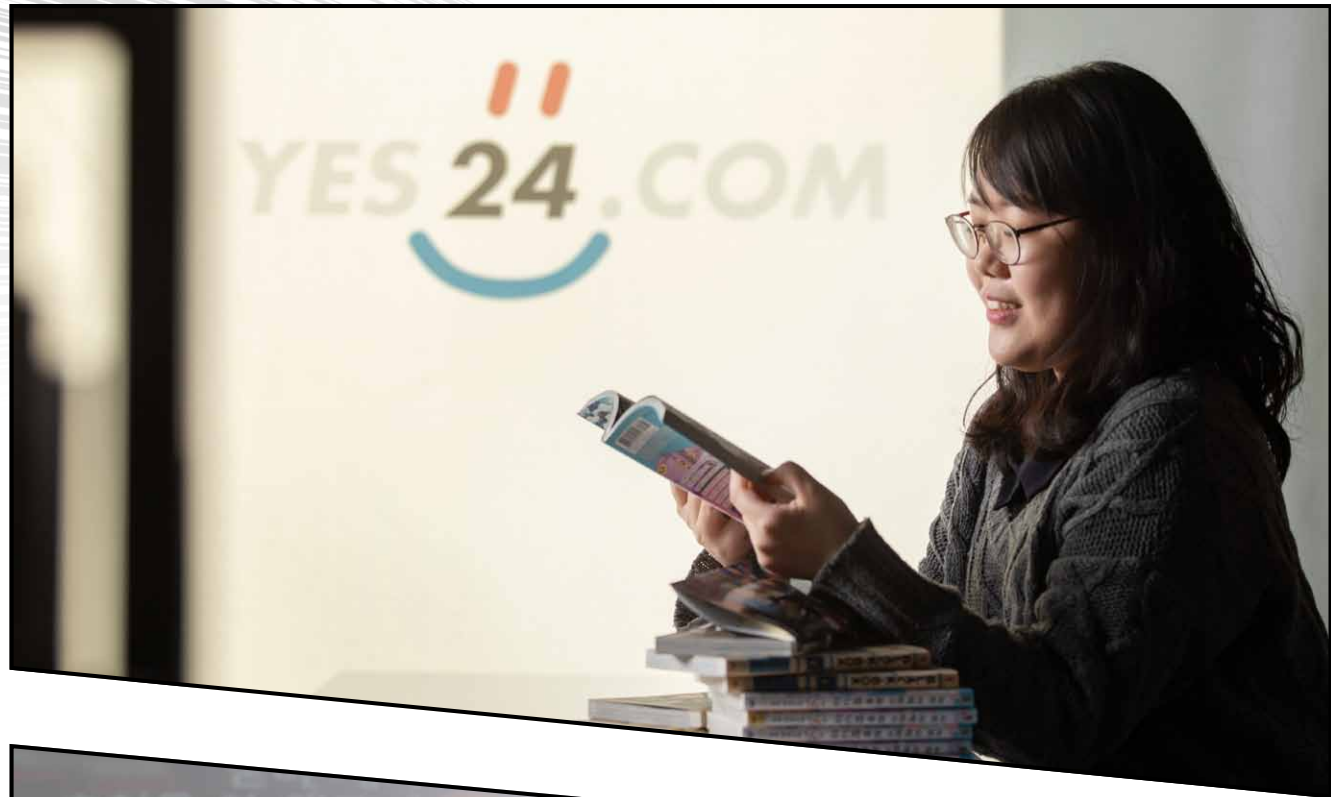
5. 업무 시 가장 주안을 두는 부분은?

해외 발매 작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이 작품이 국내 독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중심에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작품을 보기 위해서 현지의 판매지수나 수상 정보, 독자 평가, 작가 성향 등의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 눈에만 보물로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은 회의를 통해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편집 과정에서는 독자의 눈에 편안한 만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자 입장에서 볼 때도 오

개인적인 취미 생활로 보는 웹툰과 타사 발매 만화까지 더하면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의 일상을 만화와 함께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나 잘못된 번역, 이미지 편집으로 물입이 깨진 경험
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6. 업무의 장점과 고충 한 가지씩 꼽자면?

장점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내용과 같이 최
신 콘텐츠를 빠르게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입니
다. 현지에서 보내주시는 잡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때도 있고 주요 출판사의 신간은 거의 체크하고 있
습니다.

고충은 시선이 신경 쓰이는 점입니다. 지금은 창가를
등진 자리로 변경되어서 전보다는 덜한 편이지만 처음
제가 업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제 자리가 출입문을 열면
모니터가 바로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시프트코믹스의
레이블로 발매되는 일반 만화도 있지만 수가, 솔트,
페퍼라는 이름의 TL, BL, 남성 성인 만화를 검토하고
편집할 때는 모니터에 정말로 '엄한' 그림이 모니터를
채우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특정 신체 부
위를 확대해서 '이 부분을 화이트로 수정해주세요'라는



표기를 할 때 손님이 들어오셔서 혼자 민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도 별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
나가시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을까요?

7. 작업했던 콘텐츠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콘텐츠를 꼽자면?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은 <블루 피리어드>
입니다. 주인공인 야구치 야토라는 현재를 즐길 줄도
알고, 미래를 위해 적당히 노력할 줄 아는, 흔히 말하
는 '인싸 고등학생'입니다. 성적도 좋아서 이대로만 살
면 명문대도 갈 수 있는 학생이었던 그가 한 장의 그림
을 통해 '진짜 소통'을 배우면서 미대 입시를 위해 전에
없이 뜨겁게 노력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입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주인공이 겪는 성장과 좌절,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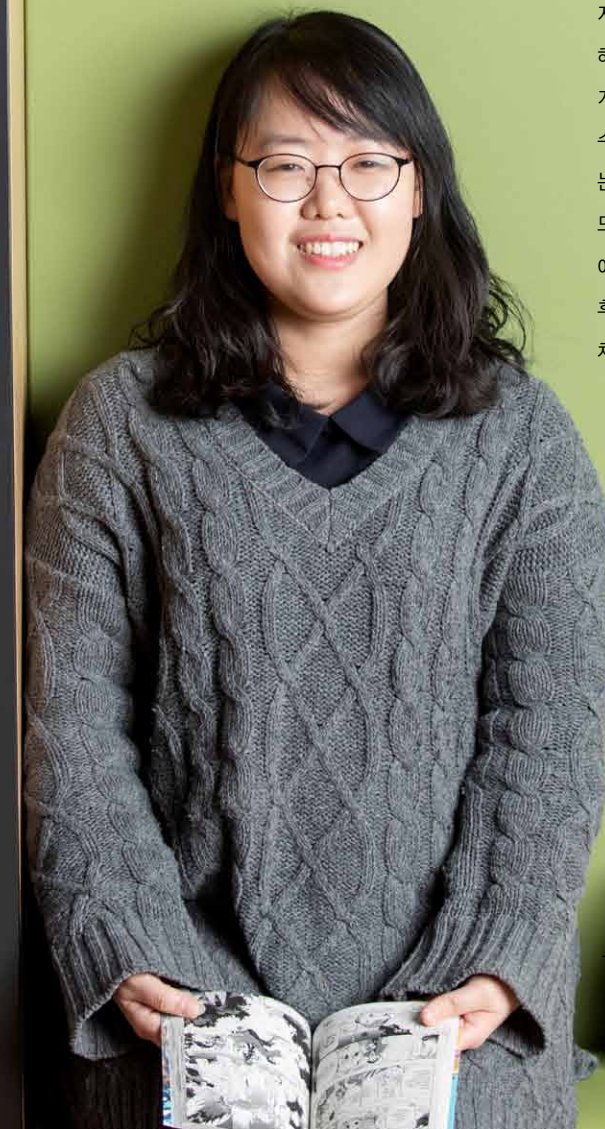
의 과정을 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경주처럼 박진감
넘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만화를 읽고 있으면 몇몇 대사가 가슴에 꽂히는 걸
느껴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한다는 독자평도 있었
지만, 인생 만화의 예감이 든다는 평도 종종 보여서 작
업을 한 입장에서 무척 뿌듯했던 만화입니다. 더 많
은 분이 보셨으면 싶은 만화이기도 합니다.

8. 한세인들에게 추천하는 YNK 대표 콘텐츠는?

12월 현재 9권까지 전자책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보
석의 나라>입니다. 2017년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면서
전자책으로 서비스되는 만화책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
다. 보석 생명체와 그들을 장신구로 삼기 위해서 습격
하는 '월인'의 싸움을 그린 판타지 장르의 만화입니다.
주인공도 '포스포필라이트'라는 보석으로, 경도 2의 깨
지기 쉬운 몸을 가졌지만 선천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 노력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불교적 세
계관을 차용한 신비롭고 몽환적인 배경과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전개로, '열린 다음 권을 내놓아라'라
는 목소리가 가장 큰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명대사가 무궁무진한 만화이기도 합니다. 미리
애니메이션을 보고 보석을 특유의 색을 선택 학습하신
후에 만화로 보시면 흑백 안에 생생한 컬러가 보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멋진 작품입니다.



SPECIAL EVENT



화합을 다지며 미래를 내다본
한세실업 7부문 2018 송년행사

케이터링 파티로 시작한 행사는 7부문 팀 소개와 팀 및 개인별 쇼케이스가 펼쳐지며 본격 가
동됐다. 2018년을 돌아보고 2019년을 내다보는 행사 2부에서는 본부별 발표와 바이어 동
향 등이 브리핑됐고, 'FRIENDSHIP'이란 타이틀로 열린 3부에서는 한세인 워라밸 버킷리
스트와 신입사원 소개, 2018 하반기 부문별 수상자를 발표하며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김정민 과장(7A11)

어서 와 이렇게 귀여운 gap은 처음이지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귀여운 스타일의 샘플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뜻 깊었고 송년 행사를 통해 7
부문 모든 팀원들과 다 함께 2018년을 마무리할 수 있
어서 즐거웠습니다.



이병현 차장(7A12)

7A12 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7부문 모든 팀 및 팀원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심정석 차장(531)

HAPPY ACTIVE HOLIDAY
팀원들과 SHOW CASE를 준비하며 더욱 돈독해졌습
니다. 저희 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고, 다양
한 샘플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7부문 5
본부 최강 531팀! 내년에도 같이 파이팅해요!



장재영 과장(532)

Botanical Garden
팀원들이 모두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
다. SHOW CASE를 통해 타 부서들이 진행하는 샘
플 또한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승현 과장(561)

Colorful and Joyful Time
함께여서 든든했던 561팀, 모두 감사합니다! 화합된
분위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홍성준 과장(562)

크리스마스 이브
잠시나마 업무 외적으로 팀원들이 즐겁게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게 즐거움이라 느꼈습니다. 가끔이
나마 이런 이벤트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박용현 차장(571)

푸근한 CHRISTMAS를 GAP ADULT와 함께
진행 중인 스타일들을 전시 함으로써, 애정이 커지는
게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 많이 가졌
으면 합니다. 7부문에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스타일
들을 구경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백지선 주임(7A11)
지난 1년 동안 우리 팀원들의 노력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 샘플들로 show case를 구성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함께 완성한 show case로 다 함께 상을 수상하게 돼 다른 어떤 상보다 값지고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2019년도도 'Best Teamwork'를 발휘해 7A11 팀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수 주임(561)
Best Teamwork상에 저희 팀이 호명되자 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고생하며 달려가고 있는 팀원들에게 소중한 '칭찬과 격려'가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지인 주임(572)
늦은 밤까지 열심히 꾸민 보람이 있어 기뻛요.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만들려고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시간들이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이호익 주임(7A12)
예상치 못한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7부문의 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연진 과장(VTN GAP)
2016 년 SET UP 부터 시작하여 2018 까지 달라진 환경 과 많은 인원의 변동으로 인해 GAP KNIT 호치민 영업부 정착하기 까지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 현재는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화합을 하고 있는 팀원 들 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HCM GAP TEAM 하면 누구든 손 들고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부서로 발전 하도록 2019 년에도 좋은 하모니 유지하며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주임(571)
이번 행사를 통해 함께 일하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갈 수 있게 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Best Smile상'을 수상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도 많은 분들이 제게 “best smile”이라고 말씀해주셔서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실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한세인이 되도록 할게요!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 주임(561)
561팀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 감사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맡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서원 주임(562)
1년 동안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나영 과장(531)
후배들이 받을 상을 대신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망했어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응원으로 알고 노력할게요.

김혜진 주임(571)
아직 부족하고 배울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best performance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상이 부끄럽지 않게 더욱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함께 일한 팀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 주임(7A11)
BEST PERFORMANCE 수상은 1년동안 계속 실수 많고, 부족함 많은 제가 기대 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팀원 분들이 항상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법석 주임(7A12)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좋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생각 하고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 하겠습니다.

TRAN THI KIEU OANH 주임(7A31)
I was really surprise to win this award. I'd like to say thank you to 7A31 team and our company. I will try my best to improve my work, thank you.

ELLEN LE 주임(7A32)
I'm very thankful for this award. I thought "Do everything with a good heart and expect nothing in return, and you'll never be disappointed" is just a random quote, but now I do believe it. Also, thank you my team mates for their big support always. This achievement will be a push for more of my effort in the future. Believe we'll all do our best for the growth of our team and the company.

First in last out



기부의 효과는 단지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전하고 나누는 시간 속에서 생겨난 파장이 주위로 번져 세상을 따뜻함으로 물들이고, 또 다른 나눔까지 낳는다. 이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FRJ가 앞장서고 있다.

FRJ,
‘탱큐 119’
캠페인으로
소방관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다



글로벌 노마드 데님 캐주얼 브랜드 FRJ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방관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펼쳐며 뜻 깊은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11월 9일 소방의 날을 기념해 FRJ는 소방 티셔츠를 제작, 판매금액 전액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기부하는 ‘탱큐 119’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화재 및 사고 현장 수습 후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관의 노고와 희생을 환기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FRJ의 전속모델로 활약 중인 미스코리아 FRJ 미(美) 김계령이 행사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섰으며, 사비로 티셔츠를 구입하는 등 훈훈한 선행에 앞장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이번에 특별 제작된 티셔츠는 1000장 한정 수량으로 만들어졌으며, 소방관을 상징하는 빨간 소화기와 함께 맨 먼저 뛰어 들고 마지막에 나온다는 뜻의 ‘First In Last Out’이란 문구가 새겨져 소방의 날 의미를 더했다.

Thank you 119



FRJ는 캠페인 기간 동안 모아진 판매금액을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희망나눔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투병 중인 소방관에게 전액 기부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세심한 혜택도 제공했다. 전국의 FRJ 오프라인 매장에서 1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할인 행사에 소방공무원증을 제시하면 FRJ의 인기 겨울 상품을 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마케팅팀 강인식 팀장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일반인보다 7배가 높다는 통계자료가 있을 만큼 소방관들은 직업병으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며 “이분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은 마음으로 기부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을 위한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FRJ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암 투병 중인 소방관을 위해 ‘소방 모자 기부 캠페인’을 진행, 판매 수익금 전액을 소방동우회에 기부한 바 있으며, 전국 소방인 농구 대회에도 후원사로 나서며 참가자들에게 신축성이 뛰어난 FRJ의 청바지와 티셔츠를 선물하는 등 소방관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꽁꽁 언 추위를 녹인 한세드림의 연탄 기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내미는 훈훈함 가득한 현장. 연말연시를 의미 있게 보낸 한세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추위를 잊게 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진 그들의 마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연탄과 함께 데워지고 있을 것이다.

2018년 11월 9일 한세드림 임직원들이 연탄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봉사활동 현장에 참석한 90여 명의 임직원은 고객 참여 행사를 통해 모인 4,000장의 연탄과 자체적으로 후원한 1,000장의 연탄을 더한 총 5,000장의 연탄을 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 2013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6년째인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은 소외 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기획된 한세드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성북구 정릉동 일대를 찾아 저소득층 및 독거 어르신 가정에 연탄을 전달했다.

한세드림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사랑의 연탄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세드림 각 브랜드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추가하고 1대 1채팅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메시지 1개당 연탄 1장이, 각 브랜드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면 댓글 1개당 연탄 1장이 기부되는 형식으로, 고객과 함께 힘을 모아 후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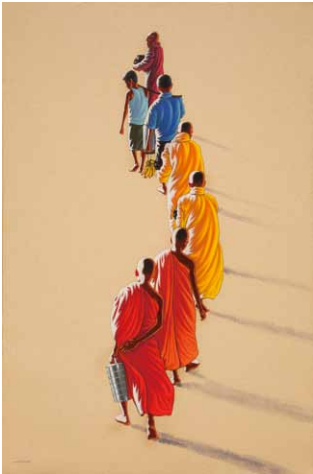
연탄 기부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세드림 각 브랜드의 신상품과 기프트콘, 쓱쓱 멤버십 포인트 등이 경품으로 지급돼 높은 호응을 받았다. 손쉽게 댓글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이웃들에게 연탄을 기부하고 경품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열띤 참여가 이어졌다.

은수빈 한세드림 마케팅 팀장은 "한세드림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매년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세드림이 고객들과 함께 모은 연탄이 독거 어르신 등 외로운 분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 국제문화교류전
〈미소의 땅 미얀마, 관계의 미학을 키우다〉 서울 개최



- 1 2 3
- 1. Moe Nyo | Poetic Poem Series 1
 - 2. Tin Htay Aung | At The Novitiation Ceremony
 - 3. Min Wae Aung | Towards Monastery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서울에서 미얀마 현대미술전 '미소의 땅 미얀마, 관계의 미학을 키우다'를 개최했다.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미얀마 대표 현대미술 작가 8인의 작품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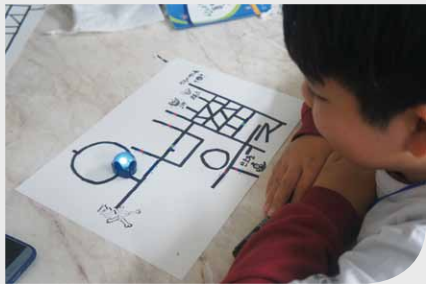
미얀마의 과거와 현재를 보다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미술전에서는 미얀마의 예술 중심지로 알려진 양곤에서 활동하는 회화 작가 등 미얀마를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가 8명이 참여했다.
'미소의 땅 미얀마, 관계의 미학을 키우다'라는 제목처럼 온화한 미얀마인들의 성품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회화 작품 50여 점이 전시되었다.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놀랍도록 풍성한 예술 세계를 형성해 왔으며, 인물과 풍경 중심의 회화에서는 평화와 자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 미얀마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인들의 미얀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양국의 관계를 공고히 할 문화예술의 자리
조영수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은 "한국과 미얀마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과 상호교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미얀마 현대미술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의 다채로운 문화를 국내에 소개할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미얀마는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로 한류 열풍의 중심지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매년 3천여 명이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얀마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행사는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미얀마 미술을 알리고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활발한 문화나눔의 자리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국제문화교류전은 지난 2015년 베트남 현대미술전, 2016년 인도네시아 현대미술전, 2017년 태국 현대미술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지난 2014년 한세예스24홀딩스의 김동녕 회장이 사재를 들여서 세운 순수 문화재단으로 한세실업이 지난 30여년 동안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강화하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강화하여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아세안의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국제문화교류전'을 비롯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베트남 미술작가 한국 연수 후원,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아시아도서문학번역사업, 도서 기증사업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문화 나눔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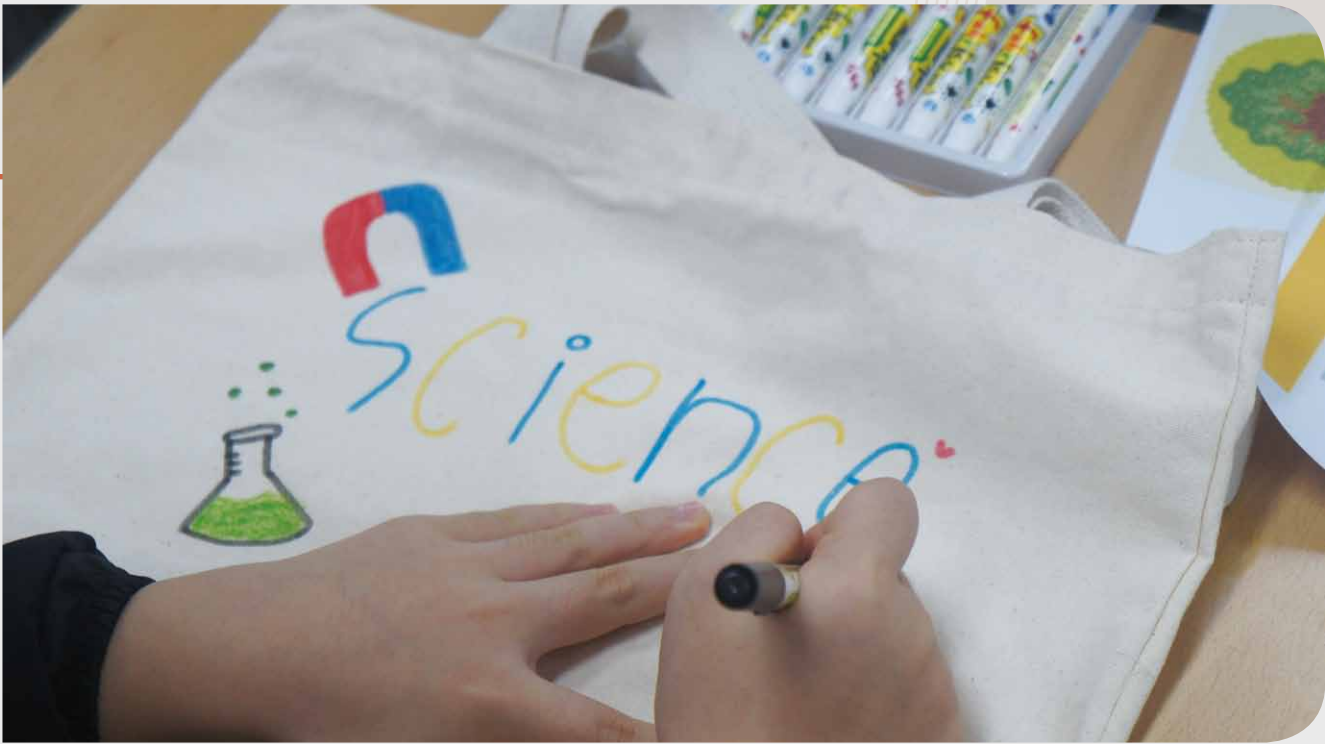
DONG-A HIGH TOP SCIENCE CAMP



동아출판,
올해는
자율주행차도
함께!

신나는
동아 하이탑
과학캠프
3기

동아출판은 11월 3일과 4일 이틀간 서울 시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50여 명이 참가한 <신나는 동아 하이탑 과학캠프 3기>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본 과학 캠프는 동아출판이 교육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서 2017년에 새로이 시작한 것으로,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와 활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동아출판 직원을 또한 캠프 교재 제작을 지원하고 캠프 운영진 '동아 서포터즈'로 참가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초등 과학교육 전문성으로 첫손 꼽히는 서울교육대학교 창의융합교육연구센터와 산·학 협력을 통해 과학캠프를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가정, 학원에서 평소 체험하기 어려운 첨단과학·창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어 왔다.



올해는 특히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RC카 조종'이 새로이 도입되어 학생들이 열띤 참여를 보였고, 기존의 '드론 날리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체험', '코딩으로 로봇 조종하기' 등 첨단 과학 프로그램이나 '드라이아이스 컬링', '전해질 램프 만들기', '플라스틱 핸드폰 고리 만들기', '에코백 디자인', '과학 미술 쇼'와 같은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여전히 큰 인기를 끌었다. 동아출판 직원들도 '동아 서포터즈'로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학생 설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유정화 사원), "학생들이 흥미를 지니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이상훈 차장) 등 서포터즈로서의 소감을 밝혔다.



송지연
편안한
캐주얼
스타일

HANSAE
fashion worldwide

강연홍
어제와
다른
느낌

HANSAE
DREAMS

김소영
모노톤
미니멀
스타일

FRJ Jeans

권유나
캐주얼과
여성스러운
믹스매치

HANSAE MK

김지연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미는 스타일

YES24.COM

류예지
단정하고
깨끗한
스타일

동아출판

신기웅
심플하고
깔끔한
패션

HANSAE YES24
HOLDINGS

‘은근한 멋’ 추구하는 그들의 감각을 읽다

예스24 사은폴파트 김지연 사원

평소 ‘꾸안꾸’를 추구해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미는 스타일이요. 옷장엔 검은색, 초록색 그리고 어두운 파스텔 톤 옷이 많아요. 매치하기도 편하고 제 피부톤이랑 잘 어울리는 색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신경 쓰는 아이템은 스타킹과 양말이에요. 신발을 벗었을 때나 신발 밖으로 살짝 나오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옷 입을 때 하나의 포인트만 주는 편이에요. 옷이 무난하면 액세서리에 포인트를 준다든지, 상의가 심심할 땐 하의를 화려하게 입는 다든지 하죠. Simple is the best! 유행을 따라가기보단 깔끔하게 입는 게 최고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제 사진을 봐도 ‘내가 왜 이랬지?’하며 창피해 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웃음).

한세엠케이 BUCKAROO 디자인실 권유나 주임

저는 평소 캐주얼한 의상과 여성스러운 옷을 믹스매치해서 입는 것을 좋아해요. 회사에서는 최대한 캐주얼하게, 주말이나 친구를 만나는 날에는 좀 더 여성스럽게 입습니다. 제가 또 워낙 분홍색과 노란색 등 원색 계통의 옷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밝은 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도 하고요. 절대 포기 못하는 아이템을 고르면 밴딩이 들어간 롱 스커트와 니트 스커트예요. 캐주얼한 후드에도 잘 어울리고, 스웨트셔츠에도 잘 어울려서 포기할 수 없죠. 거기다 편하기까지 하니까요. 기본에 충실한 패서너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 기본 아이템을 몇 가지 구입한 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으로 믹스매치해 코디하는 거죠. 적절한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RJ MD 김소영 주임

미니멀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사실 스타일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하게 믹스매치하는 편이나, 디테일이 너무 많은 ‘투머치 아이템’은 기피합니다. 미니멀 스타일을 추구하는 만큼 블랙 앤 화이트를 좋아해요. 어떤 컬러와도 매치가 쉽고, 실패할 가능성이 적으니까요. 그리고 데님! 무난하고 단순하지만 착장에 따라 무궁무진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서 즐겨 입어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패션은 나 스스로를 표현하는 수단이지만, 출근할 때는 워니 워니 해도 편하게 입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출근길은 런웨이가 아니니까요(웃음). 하루의 절반 가까이를 모니터 앞에 앉아서 보내는 직장인들이 많은 만큼 멋보다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편하게 입길 권하고 싶네요.

동아출판 창의1실 초등국사과팀 류예지 대리

저는 단정하고 깨끗해 보이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면서도 한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옷을 특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옷에 달려 있는 단추 중 하나의 모양이 다르거나 손목 부분에 작은 리본이 달려 있거나 하는 그런 옷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이템을 고르자면 원피스예요. 매일 아침 매번 옷을 골라서 입는 게 사실 일인데, 원피스는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또 모양에 따라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멋지게 차려 입을 수도 있어서 그 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옷이라 해도 어떤 액세서리를 착용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귀걸이나 목걸이, 스카프나 모자 등을 활용하는 게 팁이라면 팁이 되지 않을까요? 또 워니 워니 해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가장 멋진 패션이구요.

한세실업 1몰류팀 송지연 주임

저는 평소에 편안한 캐주얼 옷을 즐겨 입어요.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활동성이 떨어지는 옷은 잘 입지 않습니다. 또 정해진 스타일이 있기보다는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편이죠. 제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서 흰색이나 베이

한세 패션 리더들이 한곳에 모였다. 저마다의 기준과 감각으로 스타일을 완성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패션을 보는 눈을 높이고, 활용하면 좋을 팁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FASHION



한세엠케이 권유나 주임

버킷루 19SS 여성직용상품

한세예스24홀딩스 신기용 주임



한세실업 송지연 주임

동아출판 류예지 대리

지색 등의 밝은 컬러의 상의를 자주 입어요. 얼굴이 환해 보일 수 있도록요. 크고 화려한 귀걸이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스타일링을 마치고 뭔가 부족해 보일 때 활용하면 제격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패션은 부지런함이에요. 내게 잘 어울리는 옷을 찾기 위한 많은 고민과 시도가 필요하잖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포기하기 쉬운 영역이기도 하고요. 혹시 정말 패알못이어서 고민이라면, 마네킹에 코디된 옷 그대로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그럼 어느새 패션왕이 되어있을지도! ^^

한세예스24홀딩스 경영분석1팀 신기용 주임

깔끔한 패션을 좋아해서 프린팅이나 문양이 많은 옷보다 심플한 스타일을 자주 입어요. 액세서리나 신발도 심심한(?) 느낌을 좋아하죠. 컬러 선택도 블랙, 옷장



예스24 김지연 사원

FRJ 김소영 주임

한세드림 강연홍 주임

에 있는 옷 70%가 블랙인 것 같아요. 저는 시계를 꼭 착용하는데, 패션도 패션이지만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에요. 시간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 항상 시간을 확인하거든요. 없으면 허전한 느낌을 받습니다. 패션을 선택할 땐 체형을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체형에 따라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스타일링이 가장 좋은 스타일링 아닐까요? 회사 안에서나 평소 주위를 둘러보면 옷을 멋있게 입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스타일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패션을 선택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세드림 영업1팀 강연홍 주임

저는 특정한 스타일보다 ‘어제와 다른 느낌’을 주는 패션을 추구해요. 어제 청바지와 맨투맨으로 편안한 코디를 했다면, 오늘은 슬랙스와 코트로 단정한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는 거죠. 옷장을 열어보면 브라운 계열의 옷이 많아요. 컬러감이 편안하기도 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주고 싶을 때 좋은 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옷은 무조건 입어보고 사자 주의예요. 아무리 예뻐 보여도 자신의 체형이나 풍기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그저 그런 옷이 된다고 생각해요. 입었을 때 조금도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 옷을 찾는 게 팁이라면 팁이죠. 패션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디자인의 옷들을 다양한 컬러로 매치하는 걸 추천해요. 적은 옷으로도 많은 연출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과감한 디자인으로 포인트도 줄 수 있으니까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우리들의 단상

산타할아버지가 아빠였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나요?

전 아빠가 아니라 삼촌이었어요. 7살때.

아...아빠였다고요...?

저희 아빠는 산타할아버지가 되는 대신 산타할아버지로 분장해 주는 미술학원에 보내주셨습니다.

5살. 산타할아버지가 학원차에서 내려 선물을 줄 때, 루돌프를 타고 오지 않은 산타를 보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7살에 깨우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동생을 위해 아빠와 저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동생이랑 같이 카드도 쓰고 소원도 빌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엔 오랜만에 카드를 써보아겠네요.

6살 어린이집 크리스마스 행사 때, 산타옷을 입은 사람의 옷깃 너머로 흰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보고 '아, 산타는 아빠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내 머릿속 공식은 '회사원=아빠' 였죠.

8살인가 9살인가, 아빠가 힘드셨는지 갑자기 커밍아웃하셨습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요 ㅠ_ㅠ)



가장 최근 받은 크리스마스선물은? 받고 싶었던 선물은?

직접 만든 딸기청을 받았네요. 몇 년 전 크리스마스인지 모른다는 게 함정이에요. 받고 싶은 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 wifi !

최근에 받은 건 기억이 안나요. 어제 먹은 점심도 가물가물해서. 올해는 LG 프라엘 마스크를 갖고 싶어요~

케이크, 액세서리

공식 크리스마스 선물은 초등학교 때 고모한테 받은 피카츄 인형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피카츄 인형이 그 당시 잇템이었죠)

매년 겨울이 오면 뿌리는 향수. 뿌릴 때 마다 크리스마스 기분이 들어 행복합니다.

향수, 갠성 돈는 크리스마스 트리



최신 핸드폰으로 가족, 친구, 댕댕이 사진을 마구마구 찍고 싶어요. 2019년 인생샷을 책임져 줄 아이폰 XS를 원합니다.

에어팟. 날씨가 엄청 추워서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기도 전에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이어폰 줄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너무 차갑더라고요.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은 물론, 어른이 된 후에도 가슴 설레게 하는 단어 '크리스마스'. 한세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 '나도 한마디' 코너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감정을 공유해 보자.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크리스마스 때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는 걸 목격했어요. 저만 봐서 다행이었죠.

10년 전 첫 남자친구와 영화관에서 크리스마스 데이트할 때가 생각납니다(수줍).

작년에 친구들과 파티를 했는데 '누군가 사 오겠지'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무도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사오지 않았어요. 부랴부랴 근처 베이커리에 갔지만 모두 품절돼서 케이크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냈답니다. 정말 웃픈 에피소드죠? 올해는 아예 준비물을 적어줬는데 과연 무엇을 빠뜨릴지~

엄~청 추운 크리스마스에 사람 많은 명동에 갔을 때 지옥을 맛봤어요. 평소에는 잘 가지도 않는데, 왜 하필 나는 이곳에?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나갔는데, 나처럼 연락을 받고 나온 같은 반 애들이 대략 15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명동이지~ 하면서 겁도 없이 나섰다가 인파에 휩쓸려 명동 성당까지 밀려갔습니다. 다신 크리스마스에 명동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렸죠. 얼떨결에 맞이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너무 극적이라 아직까지도 그 날의 장면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청계천에 크리스마스 페스티벌할 때 눈호강하고 맛있는 거 먹은 게 생각나요. 올해도 청계광장에서 분명할 텐데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가보는 거 추천드려요.

To. 2019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미래의 나에게

그땐 혼자가 아니라 꼭 둘이길. 셋이어도 안 돼. 그건 너무 빨리^^

내년에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제발~

이제 크리스마스가 어릴적 만큼 설레지도 기다려지지도 않는 나야, 동심을 조금이나마 회복해보자.

안녕? 올해에는 해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계획인데, 2019년 크리스마스에는 집밖으로 나가서 즐기고 있니? 집을 너무 좋아하는 너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즐기러 밖에도 나가보고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마켓을 보러 독일로 떠나겠다는 소원이 이뤄졌길 바라며, 누구보다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는 애인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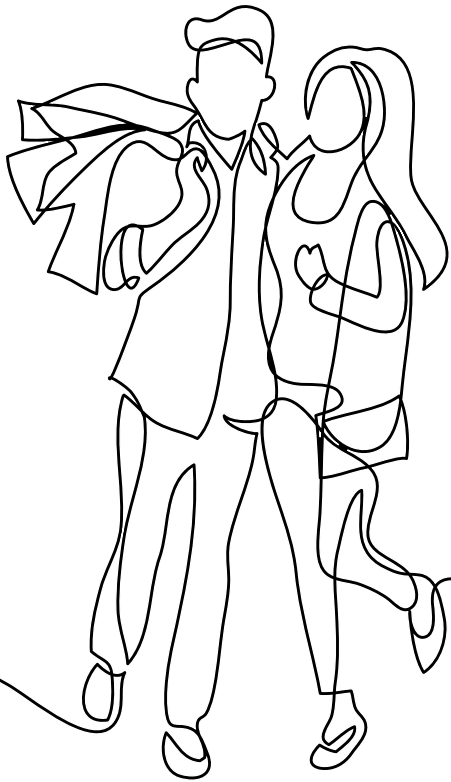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지? 딸기 생크림 케이크 사왔어. 한 판 다 먹자, 나야~

후~ 내년에는 잘하자.(짱긔)



인생샷을 위한 스타일,
한세 패션에서 찾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고 싶은 착장샷에 적합한
패션 아이템을 소개한다. 독창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한세의 의
류로 일명 '인싸'가 될 수 있는 기회!



남녀 공용 웰딩 포인트 롱다운(WHITE / NAVY / BLACK)
온몸을 감싸는 긴 기장으로 지난 시즌 대비 더욱 강력
해진 덕 다운 점퍼. 심플한 디자인과 깔끔하게 떨어지
는 핏이 돋보이며, 배색 라인과 가슴, 등판에 들어간
레터링 프린트가 포인트. 컬러는 총 3가지이며, 소매
부분 지퍼로 생활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Frj



모던양기모맨투맨(IVORY)
입체적인 레터링 나염이 유니크한 느낌을 주는 맨투맨
티셔츠. 따뜻한 기모 소재로, 목과 소매, 밑단의 배색
감이 캐주얼한 느낌을 가미했다.

Curlyssue



다이어 쿨팅 다운점퍼(NAVY)
롱기자으로 보온성이 좋으며 퍼 애리와 포켓 장식이 포
인트 허리 조임 스트링 장식 기능이 있다.



나이키 롱다운자켓
네크라인과 플리스 안감으로 보온성이 탁월한 다운 자켓 반사테이프로 안전성을 제공한다.



리버시블 블록다운점퍼, 리버시블 다운점퍼
전판 나염 배색과 솔리드 컬러 양면 착용이 가능하다.



데님 자켓 (DENIM / DARK BLUE)
클래식 리바이스 스타일이 돋보이는 편안한 착용감과 견고한 구조가 돋보인다.



MA-1 트러커 자켓 (BLACK / OLIVE)
다운 필링에 비해 부드럽고 가벼운 충전재로 간절기에 적합한 얇은 패딩



Levis kids

로고프린트롱다운자켓 (BLACK / KHAKI)
베이직한 로고 포인트로 뒷모습까지 스타일리시하다.





에프알제이 이화선 이사
유독 코가 예쁜 닥스훈트 '코미'입니다. 제 철저한 가르침을 받아 예의범절을 중시하죠. 영업 중인 가게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동네 마실 중에 음료수를 사러 가게에 들어가는 저를 따라 들어오지 않고 멈춰 기다리는 아이예요. 아무 곳이나 실례를 하면 또 달게 벌도 받죠. 조선시대 대역죄인처럼 벌을 받는 코미를 보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화도 달아나지만 엄격한 척 애를 씁니다. 귀와 털이 마치 풀어헤친 머리 같아서 사진을 찍고도 딸내미들과 한참을 웃었네요.



한세엠케이 김수정 주임
제일 친한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 '바꼬'라고 합니다. 친구가 직업 특성상 야근과 외근이 많아 제가 자주 보모 노릇을 하고 있죠. 바꼬의 아빠는 유명한 모델견이에요. 여러 CF에도 나왔죠. 9월 5일부터 꼭 제가 돌보고 있는 상황이라, 바꼬는 주인인 친구보다 저를 더 잘 따라요. 친구가 질투할 만큼이요. 옛날엔 산책을 30분만 해도 집에 와 꿀아떨어지더니 이젠 한 시간을 해도 팔팔하네요. 요즘은 제가 지쳐서 제발 들어가자고, 살려달라고 애원의 눈빛을 보냅니다.

사랑스러움 가득~
한세인의 반려동물



한세실업 최수지 인턴
어렸을 적, 겨우 제 손 크기만 했던 '토순이'는 무력무력 자라며 지는 포즈마저 예사롭지 않은 토끼가 됐죠. 종종 휴지를 입에 잔뜩 물고 신나게 뛰는 사고도 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난방기구 전선을 물어뜯다가 선이 합선돼 폭발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토순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털의 일부가 까맣게 타고 말았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뻘뻘합니다. 사랑스러운 말쑥꾸러기 우리 토순이, 앞으로는 사고 치지 말고 건강하쟈!



에스24 이충일 대리
본인이 사람인 줄 알고 있는 말티즈 '꼬미'입니다. 2016년부터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주말마다 차가에 갈 때면 반갑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놀아달라고 난리를 피우는 게 여간 장난이 아닙니다. 방구석에서는 여포지만 산책이라도 나갈 땐 졸보로 변신! 다른 강아지들이 무섭다고 도망 다니다가도 본인보다 훨씬 작은 참새라도 보이면 다시 여포로 변신하네요. 말쑥쟁이지만 세상 사랑스러운 꼬미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쟈!



한세드림 김윤진 주임
우리 '바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시나요?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냐 멍?" 4개월 정도 됐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문 앞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애처롭게 바라본답니다. 털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앞도 안 보일 텐데 매번 저러는 게 찼하면서도 너무 귀여워서 발길이 잘 안 떨어지곤 하죠.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뒤통수를 딱딱게 만드는 우리 바비 때문에 제가 외출을 줄이게 되네요. "혼자 안 두고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자신의 짝꿍을 자랑하고자 콘테스트에 나선 한세인들의 사연 중 고르고 골라봤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웃음이 절로 난다. 강아지, 고양이, 토끼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자.



한세실업 백두산 주임
스코티시폴드인데 러시안블루가 믹스되지 않았나 싶은 묘한 똥냥이 '어스'예요. 어스의 하루는 마치 한세인의 출퇴근을 방불케 합니다.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고, 눈도 제대로 못 뜯 채 견습니다. 가끔 아무런 욕구도 없이 허공을 바라보며 방바닥에 뻗어 있곤 하죠. 텅 빈 어스의 눈동자가 킬링 포인트입니다. 쏘아지는 잠을 쫓으려 앉아도 보지만 감기는 눈은 어쩔 수 없고, 어떻게든 버텨보려 한쪽 눈을 뜨지만 결국 잠에 드는 게 동질감마저 느껴지네요.

동아출판 이선아 과장
반려묘 '자몽'이에요. 나이는 만 두 살로 추정되는 수컷 고양이입니다. 1년 전 이맘때 '포인핸드'라는 어플을 통해 입양했어요. 당시 자몽이는 길을 떠돌다 구조됐는데, 집을 나왔는지 버려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마침 유기묘를 입양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자몽이의 사연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고 반하기도 했고요. 이제 자몽이는 저와 남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에요. 자몽이와 오래 함께하고 싶네요.

한세엠케이 오은지 주임
우리 '도히'는 영국에서 태어난 텍시도켓이에요. 3년 전 저와 함께 한국으로 귀화했습니다. 워낙 순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라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따르는데, 제겐 꼭 붙어있는 껌딱지 같은 아이예요. 늘 "도히야~" 부르면 달려와 무릎 위에 앉고, 퇴근시간에는 현관문에 마중 나와 있습니다. 멸치를 너무 좋아해서 "멸치야~"라고 불러도 온답니다. 하루는 멸치를 안 줬더니 거실에서 세상을 포기한 것 같은 표정으로 누워있지 뭐예요. 너무 귀여워서 가족들과 한참 웃었네요.



추운 날씨도 잊게 만드는 훈훈함,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힘든 회사일 중에도 우리를 일시켜 세우는 요소, 무
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람'이다. 힘든 나를 웃게
하고, 힘이 솟게 하는 '그 사람'. 지면을 통해 감사
의 마음을 전한다.

From. 오재은 님



이 이벤트에 저희 팀 이종석 팀장님을 추천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종석 과장님은 “a.k.a
프로 봇집리”이십니다. 저희 부서는 유럽 바이어를 담당하며 올해 여러가지 challenge가 많았습니
다. 이런 저희 팀의 모든 걱정, 근심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희 팀원들은 다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말에는 좋은 분과 함께 호텔에서 식사하시며 행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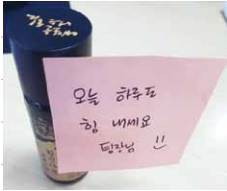
From. 박현 님

제가 이곳으로 이직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디자인실 막내로 들어와 근무를 하는 동안 과거 다니던 회사 보다
훨씬 확대된 근무 환경과 인원으로 막내 디자이너로서 업무를 처리할 때 바쁘고 힘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순간순
간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고 미숙한 부분들을 알려주며 제가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친한 친구 같은 직장 동료이자 본받을 점이 많은 선배인 신정훈 주임을 칭찬합니다!!!

From. 이영주 님

강연진 차장은 2001년부터 한세실업을 다니고 있는 17년차 모범 직원입니다. 해외근무도 두 번이나 다녀왔고요. 그
간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회사생활도 열심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
은 강연진 차장이 이번에 셋째를 출산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셋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거라 생각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강연진 차장이 해냈습니다. 동네방네 소문난다고 강연진 차장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멘트를 보내는 것은 출산휴가 중이라 잘 만나지 못해 아쉽다는 말과 세 아이의 엄
마로서 힘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강연진 차장! 셋째 출산 축하하고 칭찬합니다!

From. 박해숙 님



부서 조직이 바뀌고 PM팀을 꾸려나간 지 어언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
는 공장의 call out과 원단 업체 정우와의 끊임없는 싸움, 그리고 마스트 베트남의 계
속되는 호출로 지쳐갈 때 우리 팀의 소팀장 이현탁 대리가 저에게 “오늘 하루도 힘내세
요 팀장님!”이라는 메모와 함께 황진단액을 제 책상위에 올려놔더라고요. 제가 흥심을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죠. 이번 일로 역시 우리 일은 사람이 재산이라

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런 소팀장이 옆에 있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서 열심히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인도 요새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 해주는 이현탁 대리를 칭찬하고 싶습니
다. “참 잘했어요~~~~^^”

From. 최연희 님

그동안 7A12팀 차병직 대리님께 감사한 일이 정말 많았는데 이런 칭찬 이벤트 기회를 통하여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메일 드립니다. 차병직 대리님은 2012년 공채로 입사 이래 저를 포함한 많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특
히나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고생하시는 모습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부사수로 있으며 대리님께 업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많이 배웠
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또 그만 두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마다 항상 붙잡아 주셨고 의지할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셨
습니다. 대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는 대
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도 지금까지 여기서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저도 나중에 차병직 대리님처럼 후배가 의지할 수 있는 선배/사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회초년생으로서 이런 좋은 분을 회사 선배로 만났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하여 7A12팀 차병직 대리님을 꼭 칭찬하고 싶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From. 유진영 님



저는 저희 회사 수학팀 길소정 사원을 추천합니다! 11월 3, 4일 주말 이틀동
안 동아출판에서 주최하는 “하이탑 과학캠프”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연설명
을 하자면, 하이탑 과학캠프는 서울고대와 동아출판이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과학 창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저와 길소정 사원은 총 10개의 활동 중에서 드론 체험 활동에 배정받아 담당
선생님들을 보조하는 서포터즈로 참석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드론 작동법을 설명하시면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야외에서 드론을 작동시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 활동들 중에는 드론과 핸드폰을 연결해 드론에 장착되
어 있는 카메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드론은 핸드폰과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드론 배터리도 방전 직전이라 드론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길소정 사원이 드론을 높이 들고 아이들을 찍어주었습니다. 비록 실제 드론을 조작하기는 어려웠지만 아이들
은 길소정 사원이 직접 날려준 드론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자칫 아이들이 실망하고 시무룩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
치 있게 대처 한 길소정 사원 덕분에 모두 훈훈하게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길소정 사원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도 했답니
다. 길소정 사원! 그날 고생했고, 아주 아주 칭찬해요!!

From. 이혜영 님



저는 171팀 장태은 대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장태은 대리님이 이번 저희 7부서 하반
기 야유회 전반적인 일정과 계획을 도맡아 진행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야유회가 그간
제가 한세에 있었던 3년 반이란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역대급 야유회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 재미있고 다방면으로 성공적인 야유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들 업무에 지쳐 야유회 준비에 소홀했던 외중에도 바쁜 일정을 쪼개고 개인적인 시간까지 내가며 야유회 장소 사전
답사도 혼자 다녀오시고 술자리 게임 등에 사용할 소품도 가지각색으로 준비해 주신 덕분에 어색하거나 불편한 순간
없이 내리 웃고 떠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에 지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서 내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던 값
진 자리를 만들어 주신 장태은 대리님, 최고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바다 맨 밑에 있을 때야…. 왜냐하면 다시 올라와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거든.” 영화 레옹으로 한국에 이름을 알린 킵베송의 1988년도 작품 ‘그랑블루(Le Grand Bleu)’의 대사 중 하나다. 영화 그랑블루를 본 사람이라면 돌고래와 함께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장 르노(엔조 역)의 모습을 보며 한번쯤 근사한 삶을 꿈꿨을 것이다.

영화 속 장 르노는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사는 프리다이버의 삶을 연기했다. 프리다이버는 공기통 및 잠수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물속에서 무호흡으로 유영하는 프리다이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최근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 씨나 TV 정보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있는 제주도 해녀 등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하다. 프리다이빙은 각종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는 스쿠버다이빙과 달리 수면에서 충분히 호흡한 후 오로지 자신의 호흡만을 이용해 잠수하는 스포츠다. 그런 만큼 자신의 신체를 살피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평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공포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프리다이빙을 추천한다. 수영을 못하거나 물에 대한 공포가 심해도 만12세 이상(PADI Basic Freediver 기준)이면 누구나 일정 수준의 프리다이빙 교육을 받고 즐길 수 있다.

바다의 고요에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

프리다이빙, 이름에서마저 느껴지는 자유로움이 바다와 만나다면? 대자연의 신비에, 물속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는 프리다이빙의 세계에 빠져 보자.

글 프리다이버 김은희

프리다이빙은 단순히 레포트로 즐기는 스쿠버다이빙과 달리 매년 국제 협회에서 개최하는 대회에서 전 세계 프리다이버들이 기록 경쟁을 벌이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공인된 세계 수심 기록은 2018년 버티컬 블루 대회에서 러시아의 알렉세이 몰차노브 선수가 수립한 130m이다.

프리다이빙 교육과정

프리다이빙은 AIDA, PADI, SSI 등의 프리다이빙 단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마다 교육기간과 승급 기준은 다르지만 이론과 수영장에서 기초 교육을 배우고 바다에서 실습하는 과정은 동일하다. 기초 교육과정은 장비, 원리, 안전수칙 등의 이론과 수영장 교육을 통해 기초 지식을 배우게 된다.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되면서 호흡법과 숨을 참는 기술, 잠영 방법, 압력평형(이퀄라이징), 덕다이빙 방법과 프리다이빙을 즐길 때 가장 중요한 버디로서의 책임과 타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기술 등의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익힌다. 이로써 개방수역(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 AIDA 프리다이빙 : AIDA1-AIDA2-AIDA3-AIDA4
* PADI 프리다이빙 : 베이직프리다이버-프리다이버-어드밴스드프리다이버-마스터프리다이버

프리다이빙과 함께하는 행복

무거운 장비 없이 물안경과 스노클만 있으면 바닷속을 자유롭게 노닐 수 있는 프리다이빙. 바닷속의 산호초, 열대어들과 눈을 맞추고 거북이와 함께 헤엄치고 커다란 고래상어를 바로 옆에서 만나볼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보자.



네이버 <굿버디 프리다이빙 클럽>

대부분의 단체는 보통 4단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1단계에서는 제한수역(5m 실내 풀장)에서 프리다이빙 입문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실습을 배우게 되고, 2단계부터 바다에서 본격적으로 프리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고급과정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좀 더 깊은 수심으로 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 기본 교육을 마친 후에는 최소한의 장비(스노클, 마스크, 오리발)만을 가지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물속의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설 수 있다. 물이 무섭다고 남들보다 조금 늦다고 조바심 낼 필요 없다. 나에게 집중하고 천천히 물속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수심을 늘리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Free Diving

맛집 소개,
우리 동네 이런 곳이?!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이 있으신가요?
손님이 더 많아져 먹기 어려워질까 걱정이지만 우리 한세인들을 위해
기꺼이 '최애 맛집'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세엠케이에 재직 중인 버커루 디자인실 김아라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살고 있는 마포의 한 즉석 떡볶이 집을 소개할까 해요. 요즘 열풍인 '가성비', '소확행'이란 단어에 딱 어울리는 맛집입니다. '만원의 소확행 +가성비갑 즉석떡볶이 집'입니다. 떡볶이 덕후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코끼리분식'입니다. 소문이 자자한 만큼 이곳은 항상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내부는 작은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이고 외관은 '이곳이 맛집이 맞아?' 싶을 정도로 허름하고 협소하지만 맛과 가격은 정말 '엄지 척' 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자주 다녀가는 맛집이지만 그 흔한 연예인 사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신뢰가 가는 맛집이죠.

자 이제 메뉴판을 살펴볼까요. 두둥.... 지금 저 가격 실화 맞나요? 즉석떡볶이가 2인분에 이천원이라니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에요. 여기 즉석떡볶이는 정말 떡볶이 떡에 국물만 있으니 라면, 쫄면, 어묵 중 기호에 맞게 추가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곳 가게만의 절대 법칙이 있는데요. 기본 메뉴는 처음 주문 이후 절대!! 추가가 안 되니 처음 주문시 꼭 신중히

떡볶이	(2인분)	이천 원
라면	(사 리)	천원
쫄면	(사 리)	천원
오뎅	(사 리)	천원
추 가 메 뉴		
튀김	(3 개)	천 원
계란	(2 개)	천 원
공기밥	(국내산)	



생각하고 주문하셔야 돼요. 고민되신다면 이모님의 말을 믿고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는 도중에 추가하고 싶다고 애원하셔도 이모님은 확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추가하면 사리에 양념이 충분히 배질 않아서 맛이 없다고 합니다. 이모님의 맛에 대한 고집이랄까요. (실제로 중간에 추가하고 싶다고 성질 아닌 성질을 부리는 손님이 계셨지만 위에 내용중 이모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기본 메뉴 주문 후 추가사리는 기호에 맞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튀김 종류는 김말이, 야끼만두, 뽕넛이만두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야끼만두를 추천합니다. 기존 분식집에서 먹던 것들과 다르게 국물에 넣어 놔도 아주 바삭바삭합니다. 계란은 부쳐서 떡볶이 국물에 섞어 먹으면 말 안 해도 꿀맛인 거 아시죠?

라면사리와 쫄면사리를 추가한 떡볶이 2인분과 튀김, 계란이 나왔어요. 기본 세팅으로는 단무지가 나옵니다. 떡볶이 맛은 달달, 매콤 아주 밸런스가 좋아요. 딱 먹자마자 '아, 어릴 때 먹던 떡볶이 맛이다' 했어요. 요즘 떡볶이는 뭔가 변형이 된 듯한 맛이 많은데 여긴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사먹던 맛이예요. 살짝 칼칼하지만 달짝지근한 국물이 많아서 해장으로도 추천합니다.

떡볶이를 좀 먹다가 튀김을 넣고 계란을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말캉말캉한 떡 한 입, 라면 한 입,쫄면 한 입,튀김 한 입,국물 적신 계란 한 입.(기절^^ 계란을 너무 일찍 넣으면 터질 수 있으니 마지막에 넣어 주세요.) 이렇게 떡볶이와 물아일체가 되어갈 즈음 점점 바닥이 드러납니다. 내 떡볶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배가 불러도 마지막 코스가 남아 있어요. 추가 메뉴로 공기밥이 있습니다. 볶음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떡볶이 국물에 밥과 김가루, 날달걀, 참기름을 넣어서 쓱쓱 비벼줍니다. 분명 내 배는 이미 포화상태인데 밥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별거 안 들어 있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죠? 그 와중에 공기밥은 착한 가격 1300원입니다. (tip : 볶음밥을 드시고 싶으시면 국물을 남겨주세요.)

맛있게 먹었으면 이제 계산하러 갈까요? 2명이서 즉석떡볶이 2인분, 라면사리, 쫄면사리, 튀김, 계란, 공기밥을 맛있게 먹고 8300원을 계산했습니다. 만원을 내고도 1700원을 거슬러 받았죠. 그래서 항상 이곳에 오면 남편이 쏘겠다고 합니다. 돌맹이로 댜를 막은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푸짐한 양에 맛있게 먹고 저렴하게 계산하고 나오니 뭔가 “나 오늘 굉장히 현명했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tip

계산할 때는 현금을 준비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영업시간 : 매일 09:30-21:30

휴무일 : 첫째 셋째 월요일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45-4

전화 : 02-717-9061

마포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마포가든호텔 뒷골목에 위치했어요.

•맛★★★★★

•분위기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없다죠

•가격★★★★★

•주차걸어 다니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총평#해자스럽다 #말모 #타임머신

54 55

16

책임아웃, 1주년 특집 부산 공개방송 김하나, 오은 작가와 함께

‘책임아웃’의 진행자 김하나, 오은 작가가 부산 ‘예스24 F1963점’에서 청취자와
실제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송 1주년을 기념한 소회와 게스트들의 추천 도서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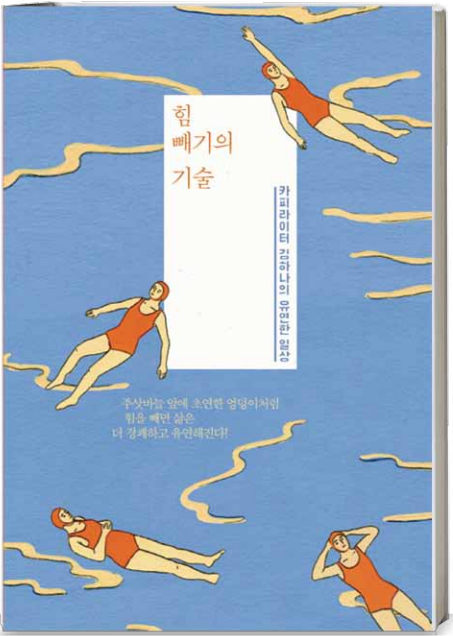
김하나: 안녕하세요. <책임아웃-김하나의 측면돌파> 김하나입니다.
오 은: 안녕하세요. <책임아웃-오은의 웅기종기> 오은입니다.
김하나: 뭐라 말할 수 없는 이 몽클함은 뭐죠?
오 은: 저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김하나: 오늘이 참 특별한 날이에요.
오 은: 네, 저희가 드디어 한 살이 되었다고 해요. 여기가 ‘예스24 F1963점’이잖아요. 부산이 하나 작가님의 고향이니까, 혹시 이곳도 와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김하나: 네. 제가 그때 왔을 때는 예스24가 있기 전이었어요. 여기 카페와 식당이 있었는데 ‘예스24 입점 준비 중’이라는 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예스24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이용을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다른 자격으로 이 자리를 찾게 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우리처럼 책을 쓰는 사람들은 인터뷰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책임아웃>에서는 인터뷰어의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점이 있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 은: 예전에는 신간이 나오면 저는 그걸 독자로서 읽고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메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분을 게스트로 모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이전에는 책장에 있는 책들을 보더라도 ‘저 책 다시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어떤, 책임>에서 주제를 정하면 ‘저 책을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 작가님은 어떠세요?
김하나: 저의 경우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너무 ‘와따’인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궁금한 게 많지만 이

건 실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나요’, ‘보통 어떤 식으로 책을 쓰시나요’,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이런 걸 계속 캐물을 수 있는 자격이 저한테 주어지잖아요.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인터뷰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오 은: 일단은 첫 방송이니까 김민정 시인, 편집자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민정 시인이 당시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동생인 오은이 방송을 한다니까 첫 방송 출연을 흔쾌히 수락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서늘한 여름밤 작가님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방송하는 내내 가장 많이 고개를 끄덕였던 것 같아요. 무릎을 치고, 물론 그 이후에 제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여선 작가님. 그때 ‘오늘 뭐 먹지?’라는 책이 출간되어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뱃속에서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먹는 이야기를 하니까. 밥을 먹고 녹음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세 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 작가님은 어떠세요?
김하나: 정말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장혜영 감독님 편이 정말 좋았어요. 사실은 저와는 너무 다른 분이셨어요. 한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그렇게 강건하게 한걸음 한걸음 걸어 나가는 분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재미있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 있는 심자가 느껴져서 저는 그 분이 너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1주년 기념 공개방송 2부에서는 또 추천 도서를 들어보려 합니다.



불헌웃

제가 가지고 온 책은 황현진 소설가가 쓴 『부산 이후부터』입니다. 이 소설 시리즈는 단호박 님이 <삼천포책방>에서 『섬의 애슬리』라는 책을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시리즈를 쫓 보다가 『부산 이후부터』를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중요한 것은 제목이 『부산 이후부터』잖아요. 그러면 부산 이후의 삶일 것이냐, 하지만 이야기라는 것은 부산 이후에 시작되더라도 과거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지점이 바로 수영구 근처라는 것입니다. 오늘 <책임아웃> 공개방송이 수영구에서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첫 번째 단락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구태식의 아버지는 늘 그렇게 운을 뷔다. 거기는 여기보다 살 만하다더라. 서울에서 원주, 원주에서 제천, 제천에서 경주, 경주에서 포항, 포항에서 부산으로. 살 만한 곳을 찾아 식구들은 군말 없이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아버지의 지인들은 대개 군대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병영 수첩을 뒤지던 아버지는 부산에 터를 잡고 나서야 전화거는 일을 멈추었다.”
그렇다면 부산에서 더 이상 사건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 이유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부산 이후부터』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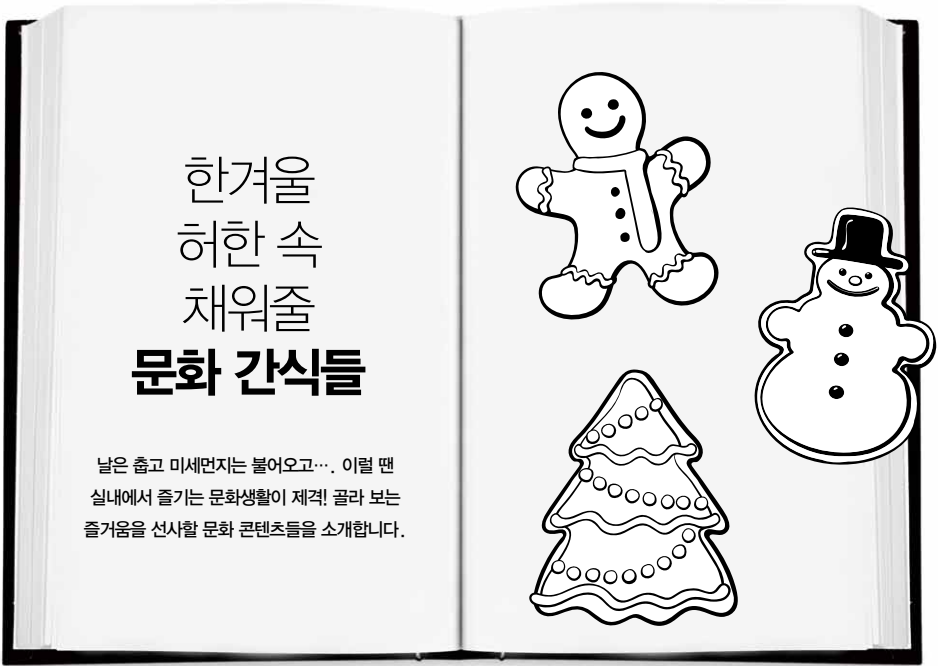


물콩

저는 ‘부산 시민에게 추천해 드릴 책’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산 시민이 별종도 아니고, 어떻게 따로 책을 추천하지 싶어서 너무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에 부산이 들어가 있다니까 약간 반칙 같습니다만. 어떤 책이 떠올랐냐 하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서 태어난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김하나라고요(웃음). 그 작가의 책 『힘 빼기의 기술』을 보면 서문 제목이 ‘만다꼬’입니다. 제가 지금 화요일에 <별이 빛나는 밤에>의 생방송에 나가는데, 그 코너 이름이 ‘만다꼬’이기도 해요. 『힘 빼기의 기술』은 제 책이니까 너무 반칙 같았지만, 떠오르는 게 이 책밖에 없어서 이 책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지금 저 뒤에 왜게신 저희 어머니 이야기도 있고 가족들 이야기도 있고요. 저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부산에서 살 때는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울에 가서 한참 있다 보면 뭔가가 너무 갑갑한 느낌이 들고 그제 부산에 와서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부산의 바닷가 근처에서 살면서 받아들였던 수많은 것들이 저 책을 쓰는 데 많이 기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책의 표지도 보면 물에 둥둥 떠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칙 맞습니다. 죄송합니다(좌중 웃음).

99

MD가 추천하는 북캉스 도서



옥상에서 만나요

김도훈 MD의 추천 도서
옥상에서 만나요 | 정세랑

내가 남긴 자리에 앉은 당신에 대한 염려, 그런 마음이 만들어낸 단단한 연대의 이야기

영국, 느리게 걷다

박정윤 MD의 추천 도서
영국, 느리게 걷다 | 오윤석

'내셔널트러스트' 들어보셨나요? 문화와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여행, 새로운 영국을 재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도훈 MD의 추천 도서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 박준

내가 아직 세상을 좋아하는 데에는 우리의 끝이 언제나 한 그루의 나무와 함께한다는 것에 있다 -「삼월의 나무」 중에서

나도 손글씨 잘 쓰면 소원이 없겠네

김수연 MD의 추천도서
나도 손글씨 잘 쓰면 소원이 없겠네 | 이호정

연말연시에 카드를 쓰다가 나의 글씨에 내가 깜짝 놀랐다면, 올 겨울 4주만에 완성하는 예쁜 손글씨에 도전해보세요!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 1

박형욱 MD의 추천도서
난생 처음 한번 들어보는 클래식 수업 1 | 민은기

초보 감상자를 위한 클래식 입문서. 아무리 들어도 낯설었던 음악들을 금세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데려다 놓는 책이다.

헤어진 다음날 달리기 1

박숙경 MD의 추천도서
헤어진 다음날 달리기 1 | 돌배

읽으면 읽을수록 달리고 싶어지는 본격 달리기 권장 (건강)만화. 달리는 데 특별한 이유는 필요하지 않아요!

눈 귀 호강 공연 소개

가 공연

뮤지컬 〈메노포즈〉 2018.11.27~2019.01.20 광림아트센터 BBCH 홀	뮤지컬 〈미드나잇〉 2018.12.04~2019.02.10 대학로 DCF대명문화공장 2관 라이프웨이홀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2018.11.13~2019.05.19 사롯데씨어터	뮤지컬 〈라이온킹 인터내셔널 투어〉 2019.01.09~2019.03.28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콘서트 〈마룬5 내한공연 2019〉 2019.02.27 고척스카이돔

영화

〈말모이〉 2019.01.09 개봉	〈PMC: 더 벙커〉 2018.12.26 개봉	〈아쿠아맨〉 2018.12.19 개봉	〈스윙키즈〉 2018.12.19 개봉	〈마:악:왕〉 2018.12.19 개봉

채널에스 추천 영화

잘 헤어져야 삶이 된다 영화 <필름스타 인 리버풀>

이별이 삶이 되려면 어쩌해야 하나. 사랑하다가 너무 아프게 헤어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을 보았다. 사랑할 때 짐작하지 못했던 이별을 잘하는 법이 어디 있겠나-마는, 상실 이후의 삶은 그 이별의 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필름스타 인 리버풀>은 삶이 되어버린 사랑과 이별의 방식을 전해주다. 서른 살 가까이 차이 나는 연하의 청년과 '한물간' 필름스타의 사랑 이야기는 두 배우, 아네트 베닝과 제이미 벨의 연기로 빈티지한 필름 톤의 영상 속에서 눈부시다. 글로리아로 분한 아네트 베닝은 주름진 얼굴과 한물간 필름스타의 쇠락한 한실보다 연기에 대한 열정, 자존감, 천진함이 조화된 관능적인 모습이 돋보였다. 영드 <셜록> 시리즈로 유명한 폴 맥기건 감독은 고풍스럽고 정겨운 영상과 디스크 같은 음악을 결합시켜 1970년대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피터의 집이 있는 리버풀을 오가는 두 사람의 한실과 화상의 연결선은 매끄럽고, 서로가 비밀을 공유하는 순간의 바닷가는 비현실적으로 아름답다. 잘 매만진 하구처럼. 하지만 이건 실화다. 영화는 피터가 1986년 출간한 회고록 『Film Stars Don't Die in

Liverpool을 원작으로 만들어졌다. 피터의 시각으로, 피터의 기억으로 고스란히 복원된 그들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는 연인 사이의 설렘, 환희, 오해, 화해가 애뜻하다. 무엇보다 눈에 밟히는 건 이별하는 방식. 피터는 병이 깊은 글로리아를 안고 리버풀의 최고 극장, 플레이하우스 무대에 오른다. 관객은 없다. 글로리아를 위해 준비한 이별 의식이다. 그녀가 그토록 연가하고 싶어 했던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1막 5장의 대사를 주고받는다. 모든 걸 불태우는 이별 연기. <필름스타 인 리버풀>에서 압권인 자료 화면이 있다. 오스카상 시상식 장면이다. 수상자로 호명되자, 특유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단상으로 올라온 글로리아는 "고맙다"라는 한마디 말을 수줍게 남기고 마이크 앞에 잠시도 머물지 않고 총총걸음으로 무대 밖으로 사라진다. 글로리아는 사라지는 것의 아름다움 선수다. 짐작 없이 미련 없이 천진하게. 글로리아의 마지막 사랑 피터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이별의 방식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별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재확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글 정은숙(마음산책 대표)
출처 채널에스 칼럼(<http://ch.yes24.com/Article/View/37326>)

유선의 기자의 ‘독서 취향’으로 알아보는 성격 테스트

지난호에 이어 ‘독서 취향 테스트’ 계속됩니다. 지금껏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소설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연말에 어떤 책을 잡아볼까, 고민할 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2

3

좋게 말하면 장르 불문 독서할 수 있는 사람. 나쁘게 말하면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기준이 없음. 어떤 때는 특이한 것을 좋아하다가, 또 어떤 때는 트렌디한 베스트셀러를 고르기도 함.

그렇다면 당신은 ‘**유연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반을 가진 스토리를 선호함. 내용은 특이해도 되는데, 스토리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나면 안됨.

그렇다면 당신은 ‘**단단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남들이 어떤 책을 보는지 거의 관심이 없음,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진열칸을 향하지 않음. 숨겨진 책을 찾아내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내는걸 즐기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음.

그렇다면 당신은 ‘**관조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돈 떨어지는 날이 인연 끊어지는 날” 책에서 반복되는 이 구절은, 어쩌면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거창한 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피곤하게 느껴지는 현실. 웃음이나 눈물까지도 다 비즈니스라는 자조적인 독백. 이런 것들이 패전 후 일본에서 열풍을 일으켰던 다자이 오사무 바람이 오늘날 한국에서 다시 일게 만드는 것 같다. 다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재능까지 갖고 있던 주인공이 태어난 순간부터 내리막을 걷게 되는 모습이, 금수저를 꿈꾸는 피곤한 청춘들에게 약간 비현실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든, 불편한 책을 유연하게 읽어볼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

“어른은 사리에 밝아. 어른은 어동을 무서워하지 않아. 모여서 차를 마시고 토론을 하지. 그러면 만사가 제대로 돌아가게 돼.” 이 책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위의 구절만 따로 떼어 읽어봤을 때 동의할 만한 어른이 얼마나 될까. 어린 시절 읽었던 ‘15소년 표류기’나 ‘로빈슨 크루소’가 판타지에 불과한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파리대왕’이다. 이 책 속엔 동물보다도 못한 사악하고 부끄러운 인간의 본성이 자세히 묘사된다. 그런 모습들은 인간이 사회를 만들어 이런 본성을 잘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통제된 오늘날의 사회는 과연 악한 본성을 잘 통제하고 있는가, 오히려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들의 사악한 본성을 뒷받침하고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지 않은가. 연말연시, 고민해볼 만한 화제를 던져주는 책이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버림받은 밤새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면 페르미나 다사에게서 받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다시 한 번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51년을 기다린 미친 사랑. 집착일까, 사랑일까. 사랑이라 해도 해바라기 같은 사랑은 아니었다. 스스로 ‘밤새’라고 칭한 여성 수백명을 돈을 주고 사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다린 사랑이다. 그래도 사랑인가. “페르미나, 반 세기가 넘게 이런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소. 나는 영원히 당신에게 충실할 것이며 당신은 영원한 나의 사랑이라는 맹세를 다시 한 번 말하기 위해서 말ियो.” 나이 일흔이 넘어, 과부가 되자마자 받는 이런 사랑 고백. 과연 받아들여졌을까. 스포는 없다, 궁금하면 직접 읽어 보시라.



소확행 말고 소확행 해야...

회사에서 만들어 나눠주는 2019년도 다이어리를 세 개 챙겼다. 하나밖에 아니, 그조차도 필요 없지만 일단 집는 대로 가방에 쑤셔 넣었다. “오늘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아호!” 하고 속으로만 소리를 질렀다.

은밀한 일탈을 하고 고개를 들어 누군가가 봤을까 주위를 두리번댔다. 한 선배가 주변을 둘러보며 슬그머니 프린터로 다가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는 프린터 밑에 쌓여 있는 A4용지 몇 묶음을 들어 재빨리 백 팩에 넣었다. ‘저 사람도 같은 기분이었지’ 안도와 씩씩한 맛이 함께 돌았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후배의 뒷모습이 보였다. 저 친구의 회사 스트레스는 A4 몇 묶음일까. 2018년 한 해 가장 인기 있던 유행어로 ‘소확행’이 꼽혔다고 한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앞글자를 딴 말이다. 집을 장만하는 대신 떡볶이를 먹고 그 국물에 튀김을 쿡 찌는, 차를 사는 대신 1000원짜리 일회용 손난로를 사서 주머니에 넣는, 남이 다녀온 여행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꿀을 까먹는 그런 것들이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은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고 한다. 회사 수첩과 A4용지를 가방에 챙기고 회사에 비치된 캡슐 커피를 아낌없이 내려 마시는 그런 것들이다. 종이컵을 하루에 다섯 개씩 쓰고 탕비실 간식을 약탈하며 정수기 물을 쉴 새 없이 들이키는 것들도 있다. 귀여운 복수랄까. “프린트할 때마다 컬러 프린터로만 출력한다”는 한 친구의 소확행은 애교였다. 다른 친구는 “모닝 똥은 항상 회사에서 싣다”며 “비데까지 쓰고 나면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했다.

작고 확실한 행복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 한 해를 소확행으로 채우며 보냈다는 말은 한 해를 행복하게 보냈다는 말일까? 떡볶이에 튀김을 잔뜩 먹고 나면 곧 살찔까 걱정이 된다. 손난로가 따뜻한 시간은 길어야 몇 시간. 식으면 생냥팔이 소녀가 된 기분이다. 손쉬운 행복은 얻을 때보다 더 빨리 사라져왔다.

소확행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내일 또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야 하는 사무실 내 자리,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 얼굴 봐야 하는 직장 동료, 조금 전 끝났지만 또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보고서들. 그 안에서 수첩 몇 개 더 챙기는 걸로 커진 기쁨은 찰나다.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통쾌하지도 않다. ‘과자 좀 덜 먹고 정수기 물 좀 덜 마시면 아낀 돈으로 월급 조금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든다. (물론 그럴 리는 없다.)

‘소확행’을 통한 ‘소확행’을 보면서 직장인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낯장의 삶을 살고 있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향한 소소한 복수를 위한 ‘소확행’이 아닌 일상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소확행’을 이루길 바란다.



"어휴 세단기에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거 진짜 OO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썰 거야?"

한 사무기기 업체의 라디오 광고다. 제본을 해야 하는 데, 세단기에 자꾸 종이가 걸려 일이 자꾸 멈추는 상황을 연출했다. 상사가 "오늘 다 날 썰 거냐"고 화를 낸다. 아마 오늘 퇴근도 늦고 이 업무만 계속 할까봐 걱정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퇴근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기계와 씨름할 것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면 '날 썰 거야?'가 아니라 '밤썰거야?' 라고 물어봐야 한다.

'밤새다'는 밤[夜]과 '새대[曙]'가 결합한 동사로, '밤이 지나 낮이 되다' 또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 광고에서 사용된 '날이 새다'는 말은 아침이 밝아온다는 뜻으로, 광고 속 직원들이 날 새고 싶다고 아침이 밝아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아침이 밝아오지 않는 게 아니므로 이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쓰인 표현은 아니다.

참고로 인터넷 포털 국어사전에 '날 새다'를 검색하면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로 상용됨을 알 수 있다.

만약 광고 속 상사가 '자꾸 세단기가 고장나 제본을 못해 이번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미로 말한 거라면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도 있어 보인다.

수제 햄박스테이크

오늘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햄박스테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면 한 끼 딱딱, 걱정 없겠죠? 집에서 만드는 수제 햄박스테이크, 함께 만들어 보아요!



- 재료소개
- 햄박스테이크 재료 : 소고기 다짐육 300g, 돼지고기 다짐육 300g, 달걀 1개, 양파 대 1/2개, 빵가루 1컵, 우스터소스 1큰술(생략 가능), 소금과 후추 약간
 - 소스 : 버터 1큰술, 밀가루 1큰술, 물 1컵 반, 우스터소스 3큰술, 케첩 4큰술, 설탕 1큰술, 양파 1/4개, 양송이버섯 3개



- 양파 반 개는 작게 다지고, 양파 1/4과 양송이는 채 썰어 주세요. (소스용)

다진 양파는 버터나 기름을 돌려 수분을 날아갈 정도로 볶아준 후 식혀 줍니다. 수분이 많으면 스테이크 가장자리가 부서지니 수분을 최대한 날려 주세요. 버터를 쓰거나 양파가 갈색빛이 돌 때까지 오래 볶아주면 풍미가 더 좋아집니다.

다짐육은 카진타월로 꼭꼭 눌러 핏물을 제거해 준 후 볼에 달걀과 볶은 양파, 빵가루, 우스터소스, 소금, 후추를 함께 넣고 주걱으로 고루 섞어 줍니다. 가볍게 섞이면 5분 정도 손으로 골고루 치대 주세요.
-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 겉면을 익혀 주세요. 옆면을 봤을 때 익은 부분이 반 정도 올라오면 뒤집어주시고 똑같이 익혀줍니다.

원하는 크기로 소분해 동글린 뒤 윗부분을 눌러 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구울 때 가운데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중앙이 움푹 들어가게 살짝 눌러 줍니다.
- 이때 속은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물을 1/3컵 붓고 뚜껑을 닫아 물이 사라질 때까지 약불로 익혀 줍니다. 뚜껑을 꼭 닫아야 속까지 잘 익어요. 스테이크가 두꺼운 경우에는 뒤집은 후 물을 한 번 더 부어 주세요.

〈소스 만들기〉
냄비에 버터와 밀가루를 넣고 타지 않게 주걱으로 섞어 주세요. 점성이 생기면 양파와 양송이를 제외한 소스 재료를 넣고 잘 풀어준 뒤 양파와 양송이를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끓여 줍니다.

완성!
소스를 올리고 달걀 후라이 올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세드림, 한중 통합 매출 2000억 원 돌파

한세드림(대표 임동환)은 작년 한국과 중국 실적을 합한 매출이 20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018년 한세드림 전 브랜드의 통합 실적은 1760억 원으로, 이는 국내 매출액 기준 작년 대비 17% 오른 수치다. 중국 매출까지 더하면 207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모이몰론은 단일 브랜드만으로도 한국과 중국에서 2018년 매출 1150억의 실적을 올리며 매출 견인에 앞장섰다. 신규 브랜드의 성장도 돋보인다. 2015년 처음 선보인 플레이키즈프로의 매출은 작년 대비 54% 늘어난 4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2018년 론칭한 리바이스키즈는 10개월 만에 매장 28곳을 개점하며 매출 50억 원을 달성했다. 2017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유아동복 시장도 개척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한세드림의 존재감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동아출판 <초고필 논설문> ‘로봇세’ 수능 지문으로 나와



초등 고학년 대상의 독해 시리즈인 <초고필 국어 독해 지금 국어 독해를 해야 할 때>가 이번 2019년도 수능 국어의 지문 주제와 일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일치한 주제는 국어 8~10번 문제로, <초고필 국어 독해비문학 논설문> 86쪽의 ‘로봇세는 필요하다’와 주제뿐 아니라 글의 종류, 출제 문제의 유형까지 모두 적중했다. 2019 수능은 난이도 조절 실패란 혹평을 들으며 ‘불수능’이라 불리는데, 특히 국어는 어려운 주제와 낯선 스타일의 문제, 긴 지문 때문에 역대 최고 난이도로 평가된다. 그렇기에 수능 국어의 지문 주제가 <초고필 국어 독해>와 일치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어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효과적인 방법은 배경지식을 넓혀서 지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다. <초고필 국어 독해>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길고 복잡한 글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독해 원리와 다양한 주제의 읽기 자료를 제공해 효과적인 독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문학과 비문학의 다양한 영역별 읽기 훈련을 돕는다.

FRJ, 땡큐 119 캠페인으로 모인 판매금액 및 소방티셔츠 기부 전달식 실시



에프알제이가 소방관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글로벌 노마드 데님 캐주얼 브랜드 에프알제이(대표성창식)는지난 달 실시한 ‘땡큐 119’캠페인을 통해 모인소방티셔츠 판매금액 1천만원과 제품을 외상 후 증후군 장애(PTSD)를 앓고 있는 소방관에게 전달하는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울 상암동 에프알제이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성창식 에프알제이 대표를 비롯해 소방동우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한상목 사무총장, 119 소방안전복지사업단 홍준성 대표, 119 소방안전복지사업단 김태훈 본부장 등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빛냈다. 2016년부터 꾸준히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위해 앞장선 에프알제이는 올해도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땡큐 119’ 캠페인을 열고 특별 제작한 소방 티셔츠를 판매한 바 있다. 티셔츠에는 소방관을 상징하는 빨간 소화기와 함께 맨 먼저 뛰어들고 마지막에 나온다는 뜻의 ‘First In Last Out’이란 문구가 새겨져 소방의 날 의미를 더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에 중고서점 오픈



예스24가 경기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중고서점 ‘예스24 기흥점’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2층에 면적 326평 규모로 들어섰다. 매장에는 6만 여권의 중고도서를 비롯해 최신 음반, 인기 DVD와 블루레이, 독서 소품, 예스24 자체 제작 굿즈 등 다양한 문화 상품이 갖춰졌다. ‘예스24 기흥점’은 ‘책의 이면’을 컨셉으로, 책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들어진 메인 서가는 마치 현실이 아닌 책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고, 앉아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계단식 서가 앞으로는 테라스를 통해 자연 경관이 펼쳐진다. 카페 공간에는 최정화 작가의 작품 ‘천상의 꽃’이 전시된 천장 아래 초록색 풀잎으로 우거진 테이블을 마련해 편안한 독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작가의 작업실을 재현한 컨셉 공간 ‘작가의 방’을 마련했으며, 책의 스토리를 표현한 그림을 전시하는 ‘미니 갤러리’를 상시 운영한다. 이 밖에도 아이와 함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키즈존과 예스24의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의 체험 공간, 작가와의 만남과 원데이 클래스, 공연 등 풍성한 문화 행사가 진행될 독립된 공간의 강연장 등 독서의 흥미를 더 해줄 다양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모이몰론’ 제 6회 가드닝 클래스 성료



한세드림의 유니크 감성 브랜드 ‘모이몰론’이 지난 15일 광주에서 개최한 ‘제6회 가드닝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모이몰론 가드닝 클래스는 부부가 함께 리스, 화관 등 식물을 활용한 소품을 만들어 보는 자리로 육아맘과 예비맘을 위한 힐링 이벤트로 유명하다. 광산구 브라운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총 20팀의 커플과 모이몰론 VIP고객 5팀 등 총 50명이 참석해 화관과 미니부케 만드는 법을 배웠다. 또한 지난 5회 행사에서 테라리움 강사를 맡았던 모델 이현이가 소품 제작법과 육아 팁을 전수했다. 참가자들을 위한 혜택도 다양했다. 부부가 함께 만든 화관과 미니부케를 활용해 포토타임을 가졌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모이몰론 양말, 머그컵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화관과 미니부케를 만들면서 색다른 경험을 가지고,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통해 부부의 추억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2019 F/W 패션 트렌드 발표회’ 개최



한세실업이 ‘2019 F/W 패션 트렌드 발표회’를 진행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패션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4차산업혁명과 ‘FALL IN ONE HANSAE’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세실업과 한세엠케이, 한세드림의 패션 계열사와 협력사 임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한세실업 R&D본부 직원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올해 패션계 동향과 2019년도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세미나와 함께 R&D직원들이 내년 유행할 의상을 직접 착용하고 진행하는 패션쇼, 수작업으로 의상 패턴을 작업하지 않고 3D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가상 피팅 시스템 등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한세실업은 “패션 트렌드 발표회는 한세실업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국내외 패션 동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준비하는 자리로, 매년 새로운 관점에서의 비즈니스 전략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패션 전문기업으로서 지속적인 트렌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업계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프리미엄 고등 영어 시리즈 <수프림> 3종 출간



동아출판에서 고등학교 영어 전문서 Supreme(수프림) 시리즈 3종을 출간했다. 수능과 내신을 모두 공략한 프리미엄 고등 영어 수프림 시리즈는 <수프림 고등영문법>, <수프림 수능 어법 기본>, <수프림 수능 영어 듣기 모의고사 20회 기본>이다. 예비 고등학생부터 고등 내신과 수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고등 영어의 핵심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10대들의 감성을 표현한 트렌디한 컬러와 디자인의 수프림 시리즈는 전국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내신 1등급 완성엔 <울쏘>가 옹소!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 한국지리 3종 출간



동아출판이 <울쏘> 고등 선택 과목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3과목을 출간했다. 새 교과서를 완벽 분석한 내신 & 수능 기본서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과목별 핵심 요점부터 용어 사전까지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메가스터디 서호성 강사가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강의하고 있다. <울쏘>는 전국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과학 고수들의 필독서!
<하이탑> 2015 개정 교육 과정용 개정판 출간



동아출판은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하이탑> 개정판을 출간했다. 30년 동안 과학 고수들의 성적을 책임진 과학 전문 대표 브랜드 <하이탑>은 새 교육과정을 완벽히 반영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방대하고 자세한 개념 설명, 이해를 돕는 풍부한 그림 자료,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예스24에서 하이탑 구매 시 한정판 하이탑 모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FRJ ‘올어바웃데님’,
무신사 공식 입점 및 이벤트 진행



에프알제이 유스컬처의 스트리트 무드가 돋보이는 서브라인 올어바웃데님이 국내 최대 패션 셀렉트숍 무신사에 공식 입점했으며, 이를 기념해 응원 댓글 이벤트를 실시했다. 데님 라이브러리(Denim Library for Youth's Culture) 콘셉트의 올어바웃데님(All about Denim)은 획일화된 패스트 패션에 지친 젊은 세대들에게 반항적인 느낌과 함께 개성있는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에 무신사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로그핏, 테이퍼드 핏 등 겨울 데님 팬츠와 다채로운 컬러감의 기모 맨투맨, 스웨트셔츠 등이다.



에프알제이, ‘힙(Hip)’한 라인업진 5종 공개

에프알제이가 청바지 뒷태를 살려주는 ‘힙(hip)’한 청바지를 선보인다. 엉덩이 라인을 강조해 여성의 곡선미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라인업진 (JEAN) 5종을 공개한다. 이번 제품은 청바지 뒷태에 한층 신경을 썼다. 허리 벨트와 주머니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요크는 청바지의 뒷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에프알제이는 기존 직선모양 요크선에서 여성 의 신체 곡선을 응용한 요크선으로 변형하고 다트를 넣어 힙이 업 돼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도록 제작했다. 빈티지 무드와 보온 기능을 더한 이번 청바지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강인식 마케팅 팀장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는 남성들의 이상형으로 꼽힐만큼 절반 입으면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며 “올 가을, 겨울 에프알제이의 라인업진으로 아름다운 청바지 태를 뽐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독자들이 직접 뽑은
2018 ‘올해의 책’과 ‘올해의 커버’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올해의 책’과 ‘올해의 커버’ 온라인 투표에서, 올해의 책 1위에 <역사의 역사>가, 올해의 커버 1위에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가 선정됐다. 총 221,538명의 독자가 참여하여 <역사의 역사>는 27,335표를 획득하며 독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유시민 작가는 “여행 가이드가 문화훈장을 받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지만 민망하기도 하다”며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인류사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더 큰 흥미를 느끼고 더 깊게 탐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예스24, 월정액 전자책 구독 서비스
‘북클럽’ 오픈



‘예스24 북클럽’은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분야의 전자책과 함께 예스24가 특정 주제 별로 큐레이션한 전자책을 구독할 수 있는 월정액 회원제 서비스다. 월 5,500원의 55 요금제와 월 7,700원의 77 요금제 두 가지로 운영된다. 국내 전자책 구독 서비스 요금제 중 최저가인 월 5,500원으로 북클럽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책을 권 수 제한 없이 무제한 다운로드 해 읽을 수 있다. 전자책은 ‘예스4 eBook 뷰어’ 앱의 ‘북클럽’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예스24, 중고서점과 환경부
그린카드 사업 연계 기념 시연회 진행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 기여를 위한 환경부 그린카드와의 사업 연계를 기념해 12월 5일 예스24 목동점에서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시연회'를 실시했다. 시연회는 예스24,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BC카드 등 관계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회복지시설 성심원에 중고서적 1,000권을 기증한다. 1월 31일까지 예스24 중고서점 강남점, 목동점, 홍대점, 기흥점, 부산서면점, 수영점 등 총 6개 매장에서 그린카드로 중고도서 구매 시 구매 금액의 30%를 에코머니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한세드림
전직원 등반대회 실시



지난 10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서대문 안산에서 한세드림의 전 임직원의 등반대회가 열렸다. 총 116명이 참여한 대회는 임직원의 단합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진행됐다.



제3회 컬리수 아틀리에클래스 성료

한세드림의 프렌치 감성 브랜드 컬리수가 제3회 컬리수 아틀리에클래스를 실시했다. 지난 10월 25일, 서울시 중구 정동길에 위치한 쥘프 아틀리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랑스 문화 행사로 개최됐다. 수업 진행은 <프랑스 아이는 말보다 그림을 먼저 배운다>의 저자 신유미 작가 외 3명의 강사진이 맡았다. 할로윈 인형 만들기과 할로윈 분장하기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프랑스 동화책 <우리집 유령은 내 친구>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화책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이들은 직접 유령 친구 그림을 그리고, 밑그림을 토대로 천을 이용해 형을 만들었다. 아울러 페이스 페인팅과 컬리수 박쥐나비넥타이로 할로윈 분장도 진행됐다.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동안, 부모들은 따로 마련된 카페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업 현장을 관람했다.

한세드림 브랜드 통합매장 월평균 매출 상승 (롯데아울렛 부여점)



한세드림(대표 임동환)이 브랜드 통합 매장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세드림은 2017년 4월, 포항 양덕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브랜드 통합 매장 4곳을 운영 중이다. 브랜드 복합 매장 1호점 포항 양덕점은 오픈 이후 하루 평균 50명 이상이 방문하고, 월 평균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차근차근 기반을 다지며 지역 대표 아동복 매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양덕점에서는 모이몰론이 하루 최고 매출, 월 평균 최고 매출

을 동시에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했다. 또한 롯데아울렛 부여점의 경우, 2018년 4월 개점 이후 7개월 만에 월 평균 매출이 9천만 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 속도를 자랑 중이다. 그중 플레이키즈 프로는 하루 최대 1천 2백만 원, 월 평균 5천 3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8 한세베트남 협력업체 간담회’ 성황리 개최



한세실업(대표 김익환)이 지난 30일, 베트남 호치민시 갈라 센터에서 '2018 한세베트남 협력업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세베트남 협력업체 55곳의 임직원, 현지 기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패션4.0시대를 맞아 올 한해 패션 트렌드와 2019년도 글로벌 패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한세실업은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을 위한 윤리 경영 발표로 행사를 시작했다. 이후 최근 한세실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인 '햄스(HANSAE Advanced Management System)'를 소개하는 세션과 한세실업에서 제작된 의상을 소개하는 패션쇼, 협력사 직원들의 장기자랑 등의 시간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고도화되는 패션 업계 트렌드에 발맞춰 IT와 패션 산업이 접목된 시스템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속 협력 약속” 니카라과 정부 대표,
한세실업 방문



11월 28일, 니카라과 정부 대표단이 한세실업(대표 김익환) 서울 여의도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현재 니카라과의 경제 상황을 알리고, 니카라과 주요 수출업체로 자리잡은 한세실업 니카라과 법인의 지속 투자와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니카라과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자리에는 니카라과 정부 대표로 발토다노 투자진흥청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한세실업에서는 윤권식 부사장과 주상범 전무, 이송희 상무 등 10여 명이 참석해 니카라과 정부와의 협력 상황을 논의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
10개국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지난 16일 국내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 콘래드서울 제스트에서 진행된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서류전형과 면접, 학업성적, 한국문화 이해도, 대외활동 등 세심한 검증을 거쳐 선정된 총 10개국 10명의 학생이 참석해 장학금을 받았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국의 차세대 리더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졸업 후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앤듀, 아티스트 민킴과 콜라보 전시회 열어

티셔츠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 앤듀의 이색 콜라보레이션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대표 김동녕, 김문환)의 스타일리시 어반 캐주얼 브랜드 앤듀(ANDEW)는 11월 10일, 홍대 라이즈 호텔에서 아티스트 그룹 더블유티에프엠(WTFM) 소속 '민킴(MINKIM)' 작가와의 협업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앤듀의 맨투맨, 셔츠 등을 오브제로 활용하는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민킴 작가만의 몽환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작품 분위기를 배가시켰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천국 '발할라'에 영감을 받아 '필즈 라이크 발할라(Feels like Valhalla)'라는 컨셉으로 꾸며진 전시회장은 LED 조명과 대형 설치 조형물 등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민킴 작가의 시그니처인 그라데이션 표현을 활용해 제작된 이색적인 아트 오브제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방문객들은 콜라보 제품들을 입어보고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 SNS로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세엠케이 버커루,
양세종 X 선미 미공개 화보컷 공개



양세종과 선미의 빈티지 색시미가 담긴 버커루 미공개 화보가 공개돼 팬들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대표 김동녕, 김문환)의 오리지널 빈티지 캐주얼 브랜드 버커루는 전속모델인 배우 양세종, 가수 선미의 올 겨울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2018 F/W 미공개 화보를 공개했다. 강렬한 컬러 배경에서 촬영된 이번 화보에서는 선미가 겨울 아우터 안에 탄탄한 복근이 보이는 상의를 코디해 건강미를 뽐냈고, 양세종이 우월한 비율과 깔끔한 마스크로 다양한 겨울 아우터를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했다.

NBA, 벤치다운 런칭 기념
‘청하 팬사인회’ 개최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대표 김동녕, 김문환)의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 NBA는 올 겨울을 겨냥해 선보이는 'NBA 벤치다운'의 출시를 기념해 자사 모델인 가수 '청하' 팬사인회를 실시했다. 10월 20일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청하가 직접 NBA 신제품을 착용하고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팬사인회는 응모권을 지참한 총 110명의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모권은 현대백화점 신촌점 NBA 매장 또는 YES24 사이트에서 7만원 이상 구매 시 각각 선착순 및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었다.

LPGA골프웨어, 고진영 LPGA투어
신인상 수상 기념 이벤트 개최



LPGA골프웨어가 후원하고 있는 슈퍼루키 고진영이 생애 첫 LPGA투어 신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대표 김동녕, 김문환)의 트렌디 퍼포먼스 골프웨어 'LPGA골프웨어'는 고진영 프로의 LPGA투어 2018 시즌 신인상 수상을 기념해 2018 F/W 제품 30% 할인과 더불어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를 실시하며 사은행사를 진행했다. 고진영의 이번 수상은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LPGA투어)에서 유수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한국 선수가 4년 연속 신인상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BJ와 디즈니 곰돌이 푸의
특급 콜라보



한세엠케이의 베이직 트렌디 캐주얼 브랜드 TBJ는 디즈니 인기 캐릭터 곰돌이 푸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곰돌이 푸 후드폴오버' 2종과 '곰돌이 푸 맨투맨' 2종 등 총 4종의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들은 TBJ가 캐릭터 브랜드와 협업한 첫 사례로도 주목된다. 특히, 이번 콜라보 제품들은 기존 디즈니 상품들과 달리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한 스타일과 함께 과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주목을 끌고 있다. TBJ는 콜라보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열고 감성적인 디즈니 캐릭터 인형을 증명했다.



A male model with reddish-brown hair is standing against a red brick wall. He is wearing a long, white, quilted puffer coat with a black collar and cuffs. He is also wearing blue jeans and purple sneakers. The background is a red brick wall with a window visible on the left.



#TBJ
#뽀송이롱다운점퍼

TBJnearby

WWW.TBJ.NET |   @tbj_nearby



A female model with long brown hair is standing against a red brick wall. She is wearing a long, pink, quilted puffer coat with a white fur collar. She is also wearing a white turtleneck sweater. The background is a red brick wall with a yellow line on the ground.



#NBASTYLE
#NBA벤치다운



WWW.NBASTYLE.CO.KR |   nbastyle @nbastyle_kor



MAKE
BY
POLYGON
CLS
19-EST-93

CURLYSUE



PLAYKIZ PRO

HANSAE YES24
HOLDINGS

HANSAE
fashion worldwide

C&T
COLOR & TOUCH

HANSAE MK

HANSAE DREAMS

FRJ Jeans

YES24.COM

도아출판

YES24 live HALL

YNK MEDIA

iSTYLE24